

Style 1 조선일보

APRIL 2013 vol.91



New Collection TANK ANGLAISE

Cartier



CHANEL



45

48



표지에 등장한 이미지는 새롭게 선보이는 탱크 앙글레즈(Tank Anglaise)의 레드 스트랩 모델. 까르띠에의 전설적인 아이콘인 탱크 워치의 '탱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Never Stop Tank). "라는 슬로건 아래 탄생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더욱 섬세하고 풍부하게 재해석했다. 다양한 컬러의 레드 스트랩 선택도 가능하다. 탱크 워치의 독특한 특징인 평형 사프트를 크라운과 완벽하게 통합해 더욱 멋스럽다. 문의 1566-7277



30



8

- 12 신의 물방울을 머금은 우리의 미학 언젠가부터 우리네 삶에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든 와인 글래스의 미학.
- 14 BEAUTIFUL ADVENTURE 달콤하지만 우아한 핑크, 밤하늘을 수놓은 별, 웅장한 사자, 더 이상 심해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의 향연.
- 16 PERFECTLY FORMED 작지만 강인하며, 클래식함을 담고 있는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스케이 워치 컬렉션.
- 18 CANDY BAGS 단지 사이즈만 작아졌을 뿐인데,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코닉 백 컬렉션.
- 20 SHOE OBSESSION 화려한 스티드 장식은 물론 사랑스러운 리본 디테일, 비비드한 컬러를 적용하는 등 트렌디한 요소를 곳곳에 가미한 남성 클래식 슈즈.
- 22 OPTICAL SCENE 옷차림에 리드미컬한 변주를 더해줄 형형색색의 옵티컬 프린트를 주목할 것.
- 24 POWERFUL MOISTURE 유분이 넘쳐나고 심하게 번들거리는 남자의 피부에 불비와 같은 촉촉함을 선사해줄 수분 제품.
- 26 LUXE TECH 이번 시즌 잇 백과 슈즈만큼이나 매력적인 패셔너블한 테크 케이스.
- 28 EXCELLENCE OF BEAUTY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품질, 다양한 제품군, 뷰티 전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마케팅으로 그 영역을 전세계로 확장시키고 있는 한국 뷰티 시장.
- 30 RITE OF SPRING 봄은 이렇게 소리 없이, 신성한 실루엣과 나뭇가리는 시몬, 선명한 컬러로 찾아온다. 빅 하우스들이 선택한 2013 S/S 컬렉션.
- 38 BASIC ELEGANCE 울 볼, 어떠한 룩에나 쉽게 매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여성 구두에 투자할 것.
- 39 STUD ATTACK 랭방 컬렉션의 2013 S/S 백은 스티드 장식과 특별한 소재, 다양한 디자인으로 멋과 실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 40 PERFECT COMPACTION 스낵케아 효과와 휴대성까지 고루 갖춘 콤팩트 파운데이션.
- 41 LEGENDARY FRAGRANCE 따뜻한 봄날, 풍부한 플로럴 부케로 진정한 여인의 향기를 전해줄 샤넬 N5 오 프라미에르 스토리.
- 42 COLOR ME! 상큼하고 달콤한 컬러를 담은 신제품 아이 팔레트 컬렉션.
- 43 GET PERFECT SKIN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피부를 완성해주는 바비 브라운 톰웨어 이브 파니시 콤팩트 파운데이션.
- 44 ITALIAN CHARM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언어를 품고 있는 이탈리아의 디자인 가구 브랜드 노바모빌리.
- 45 VIVA, PASTA 여섯 명의 재능 있는 젊은 여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요리인 파스타에 자신들만의 스타일을 더한다.
- 48 BEYOND HISTORY 파란색의 상징, 신타 마리아 노벨라그라 비일 스러운 중세의 문을 활짝 열었다.
- 50 GENTLE LADY 부드러운 세이프, 신뜻한 컬러와 여성스러운 디테일 이 돋보이는 커리어 우먼을 위한 브라프케이스.

Style 조선일보

Issue.91 April 2013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진 yejin_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ING PROCESS
 인쇄 | 타리타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첫째 주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인 첫째 주 화요일에 배달됩니다.
 * 2·3·4·8·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화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혁신과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COM

FENDI

Jewel BOLD & WIDE

심플하고
와이드한 디자인,
과감하고 볼드한
밴글의 매력.



프로그래머 영정호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심플한 골드 디자인에 열석을 넣는 홀을 표현했다. 가격 미정 **타파니**, 전 세계 정원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빌라 말로파 팜 컬렉션 1천만원대 **타파니**, 10.42가넷 쿠션 컷엘라 시파이어를 장식한 하이 주얼리 테일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부레론**, 비제루원 컬렉션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홀 위에 세팅한 밴글 7천만원대 **탈가리**, 옐로 골드로 과감하게 스타드와 진주를 표현한 크러스터 홀리 데이 밴글 가격 미정 **타사키**, 타파니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루베아도 메탈을 사용해 실용하게 디자인한 1937 와이드 컷, 6만2천원대 **타파니**.

Fashion SOFTLY, LIGHTLY

무게와 장식을 덜어내고 감각적인 프린트와 가벼움으로 승부하는, 이 계절을 위한 패브릭 백.

(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남미 주머니를 그래픽적인 프린트로 표현한 캔버스 토트백, 33X44cm, 77만원 **홍삼**, 붓으로 터치한 듯 통풍한 컬러가 인상적인 PVC 토트백, 37X37cm, 10만원대 **테드 베이커**, 파이론 무늬를 프린트한 이치 파이론 백, 30X38cm, 21만원대 **소프트백**, 빛 반사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내뿜는 유연한 형태의 토트백, 39X39cm, 81만원대 **폴리조 폴리조**, 원단한 플러워 프린트가 경쾌한 느낌을 주는 캔버스 백, 42X34cm, 38만원대 **까르뱅**, 에디터 **이예진**.



Beauty PRETTY POLISH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선명하고 화사한 네일 컬러를 즐길 때가 왔다. 특히 이번 시즌엔 패션, 뷰티 트렌드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강렬하고 신뜻한 울트라 컬러가 강세. 지난 겨울의 짙고 어두운 네일 컬러는 잠시 넣어두고 오렌지, 레드, 블루, 그린 등 생기 넘치고 밝은 네일 에나멜을 살펴보자. 나스는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답게 산성하고 발색력이 좋은 '쇼리 핑크'라는 컬러링의 핫 핑크 네일 에나멜을, 맥은 손을 더욱 하얗고 화사하게 연출해줄 미드 톤의 오렌지 코랄 컬러인 피에스타웨어 네일 라커를 출시했다. 에스티 로더는 플라워 마켓의 마켓이 아름다운 부케와 마켓의 팝 컬러들, 아이들의 장난감에서 볼 수 있는 파스텔컬러에서 모티브를 얻은 로맨틱하고 청년스러운 느낌의 네일 라커 해비 페달 컬렉션으로 손톱을 볼빛으로 물들일 예정. 비바드한 림 컬러가 인기를 끌면서 림 제품에서 영감을 받은 네일 컬러도 있다. 디올은 가장 인기 있는 림클로스 세이더 4가지에서 영감을 받아 반짝이는 핑이 가득한 네일 컬렉션을, 랑콤 역시 27가지 컬러의 루즈 인 러브 림스틱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20가지 색상의 싱그럽고 관능적인 네일 컬러를 선보인다. 선명한 컬러의 네일 에나멜을 바를 땀 손톱 길이는 길지 않게 정돈해야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라운드 모양으로 다듬으면 사랑스럽고 귀여운 이미지를, 스퀘어로 다듬으면 트렌디하고 세련된 느낌을 더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에디터 권유진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입성로랑** 라꾸 라꾸 퍼퓸 N2 10ml 3만원.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네일 라커 해비 페달 컬렉션 입성트 9ml 2만6천원. **나스** 스카입 네일 폴리쉬 쇼킹 핑크 15ml 2만6천원. **맥** 네일 라커 피에스타웨어 10ml 1만5천원. **랑콤** 베르니 인 러브 로즈 페디마니 6ml 2만5천원.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네일 라커 해비 페달 컬렉션 딜러링트 9ml 2만6천원. **디올** 베르니 433 델리스 10ml 3만2천원.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항공기를 수놓은 디자인, 핀란드 기업들의 창의적 DNA

다양한 업종을 넘나드는 각종 칼라베이션은 이제 흔하다. 하지만, 시간적인 즐거움과 메시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빈틈은 기획도 가끔씩 나오기 마련이다. 최근 육종한 항공기 몸체와 기내식 식기 디자인, 승무원들의 앞치마까지 아우르며 청량감 '돋는' 이색 디자인 칼라베이션을 발표한 핀란드 기업들의 시도는 눈길을 끌 만한 가치가 있다. 핀란드의 국영 항공사인 핀에어는 오는 여름부터 모든 여객기에서 사용하는 컵, 접시 등 식기와 배개, 담요 등 패브릭 제품에 유명 디자인 브랜드 마린메오 고유의 발랄한 문양과 색상을 담은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3년간 지속될 이번 칼라베이션을 기념해 마린메오의 대표적인 꽃 문양 '우니코(Unikko)'를 기체에 입힌 에어버스 A340 항공기를 아시아 노선에 투입했다. 지난 3월 말, 서울의 마린메오 가로수길 매장에서 공개한 마린메오 포 핀에어(Marimekko for Finnair) 컬렉션은 핀란드의 기내 환경에서 눈을 즐겁게 할 뿐 아니라 가벼운 재질로 제작해 기체 무게를 감소시켜서 연료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까지 노렸다고 한다. 마린메오의 세일즈 디렉터 파비 리는 "양 사 CEO들의 담화로 우연히 색칠 아이디어가 실현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칼라베이션"이라며 "흥미롭게도 이번엔 선보인 컬렉션에서는 마린메오의 1960년대 디자인을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종류는 다르지만 핀에어의 비즈니스, 이코노미 노선에 모두 칼라베이션 제품들이 제공될 것이라고. 에디터 **고성연**



Exhibition 구찌 (플로라 아카이브(Flora Archive))展

시간을 초월한 듯한 우아미로 사랑받았던 이탈리아 브랜드 구찌의 '플로라(Flora)'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이 유명한 패턴은 원래 1966년 로돌포 구찌의 요청에 의해 모노코의 공주 그레이스 켈리를 위해 세계절을 대표하는 꽃과 베리류, 곤충 등을 조화롭게 엮은 작품을 만든 데서 비롯되었다. 그 뒤로 구찌 컬렉션에서 오랫동안 여성적인 미를 상징해왔던 이 '아카이브'는 2006년 당시 핸드백 디자인 디렉터 프리다 자이아니니가 가장 패턴에 적용해 화려하게 부활시켜 주목받기도 했다. 자이아니니는 올해 크루즈 컬렉션에서 플로라 아카이브를 보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선보였다. 구찌는 서울 청담동에 자리잡은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2013 크루즈 컬렉션과 S/S 시즌 컬렉션 제품을, 플로라 아카이브 한테 아우라인 '이름다운 조우'를 보여줄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이탈리아 피렌체에 위치한 구찌 뮤지엄(Gucci Museo)에서 공수한 플로라 아카이브 아이템 25여 점이 국내 최초로 공개된다.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문의 1577-1921 에디터 **고성연**



Art. SPR12P prado.com



PRADA
EYEWEAR



페인트 자국이 멋스러운 블루 컬러 라이더 재킷 가격 미정 디스퀘어드.



비바드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헤드폰 9만8천원 소비코 AV.



베이스한 디자인의 오렌지 컬러 소가죽 브리프 케이스 1백38만원 말프 로렌 퍼플 라벨.



포임 패딩의 옐로 캐주얼 가죽 벨트 50만원 키튼.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35만원 내레이션을 by 문.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준 키튼의 레드 6만원 키튼.



메탈 그린 컬러의 선글라스 30만원 바버리 by 록스타카.



블루와 그린, 화이트 컬러의 배색이 돋보이는 옥스퍼드 슈즈 1백35만원 톨 브라운 by 10 프르소 코모.

for him Selection

이번 시즌엔 컬러의 향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강렬한 컬러가 강세다. 레드, 오렌지, 옐로, 블루 등 스타일에 산뜻한 포인트가 되어줄 컬러 아이템. *photographed by hwang in woo*



감각 있는 바이크 룩을 완성해줄 오렌지 헬멧 50만원 보사리노 by 마이분.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오렌지 컬러 슬림은 슈즈 54만원 프라다.



폴리우레탄 소재의 레드 컬러 티셔츠 120만원 로타.

니트 소재의 패시브 셔츠 1백40만원, 오렌지 컬러 카디건 2백24만원, 오렌지 컬러 패턴 스카프 가격 미정 모두 키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한 그린 컬러 스피커 7만8천원 렉슨 by 마이분.

구피 1577-1921
마이분 02-6947-1270
분더샵 맨 02-3444-3300
10 프르소 코모 02-3018-1010
키튼 02-6905-3787
록스타카 02-501-4436
디스퀘어드 02-3445-3107
에르메스 02-544-7722
로타 070-4146-8722
쿤 02-548-4504
말프 로렌 퍼플 라벨 02-545-8200
소비코 AV 02-525-0704
프라다 02-3218-5331



은박느낌으로 처리한 가죽이 유니크한 클러치 가격 미정 바버리 프롬싱 by 분더샵 맨.

스타일리스트 양현정 에디터 김유진



서울: 현대백화점 양구정점 2F 02.3438.6008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2F 02.3467.8411 - 현대백화점 목동점 1F 02.2163.1189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1F 02.2639.194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2F 02.3479.6030 6F 02.3479.6041 - 롯데백화점 강남점 1F 02.6116.3121 - 롯데백화점 잠실점 1F 02.2143.1817 - 롯데백화점 분점 1F 02.772.3265
대구: 현대백화점 1F 05.3452.120 부산: 현대백화점 1F 05.1667.0128 - 신세계 백화점 1F 05.1745.1239

TODS.COM

화사한 파스텔 핑크 컬러의 재킷 3백65만원 발망.



다양한 컬러와 그래픽 패턴이 신뜻한 실크 스카프 40만원대 **에르메스**.



편성 디자인이 유니크한 하이톱 운동화 85만원 **마이크 by 10** 프로스 코모.



하트 모티프가 사랑스러운 락미 이어링 50만원대 **루이비통**.



브랜드 시그니처 버클이 포인트인 블루 컬러 클러치 91만5천원 **구찌**.

▲에르메스 유행형 에디터 권유진

for her Selection

올봄엔 선명한 컬러 아이템에 도전해볼 것. 컬러 매치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소품부터 시작해보자. 화사한 봄날을 닮은 비비드한 컬러 아이템.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스프링 플라워 향수 75ml, 32만5천원 **크리드**.



레드 컬러의 오렌지 메탈릭한 하이힐 1백만원대 **디올**.



독특한 프레임 장식이 돋보이는 안경 가격 미정 **지방시 by 다리 F&S**.



스타드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벨로 컬러 지갑 18만5천원 **마이클 코어스**.



볼드한 체인 브레이슬릿 17만원 **마크 by 마크 제이콥스**.

신뜻한 컬러 컬러 레이스 스카프 45만5천원 **버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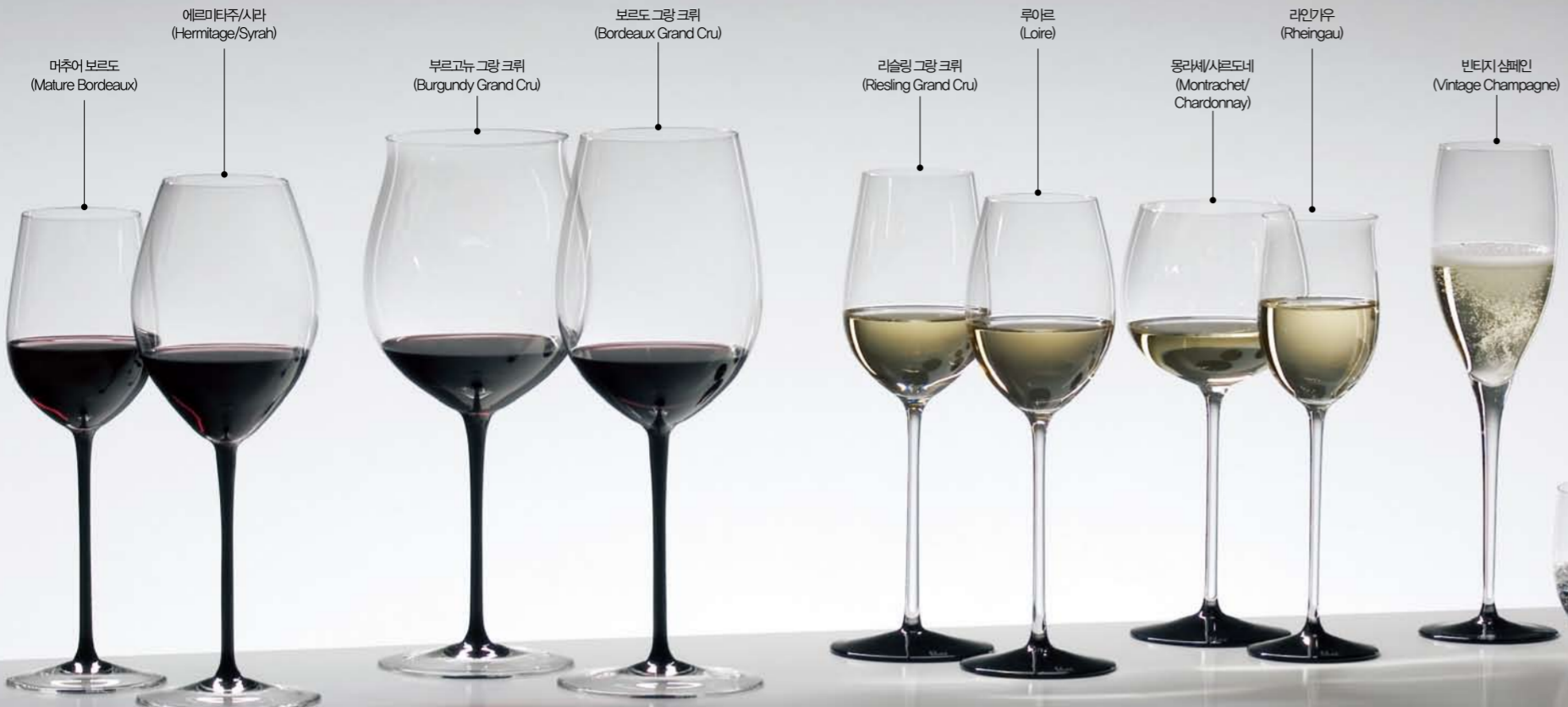
스타드로 그래픽 패턴을 형상화한 투 슈트백 4백80만원대 **펜디**.

- 구찌 1577-1921
- 발망 02-6905-3585
- 마리아 꾸르끼 02-6905-3789
- 에르메스 02-544-7722
- 10 프로스 코모 02-3018-1010
- 루이비통 02-3432-1854
- 디올 02-518-0277
- 크리드 02-6287-0020
- 렌디 02-2056-9023
- 듀에폰티 02-790-4523
- 마크 by 마크 제이콥스 02-3442-2950
- 마이클 코어스 02-3444-1730
- 다리 F&S 02-546-7764
- 데레쿠니 070-7130-2959

실리콘 링에 0.027캐럿 다이아몬드를 장식한 반지 각 13만7천원 **듀에폰티**.



EMPORIO ARMANI



신의 물방울을 머금은 유리의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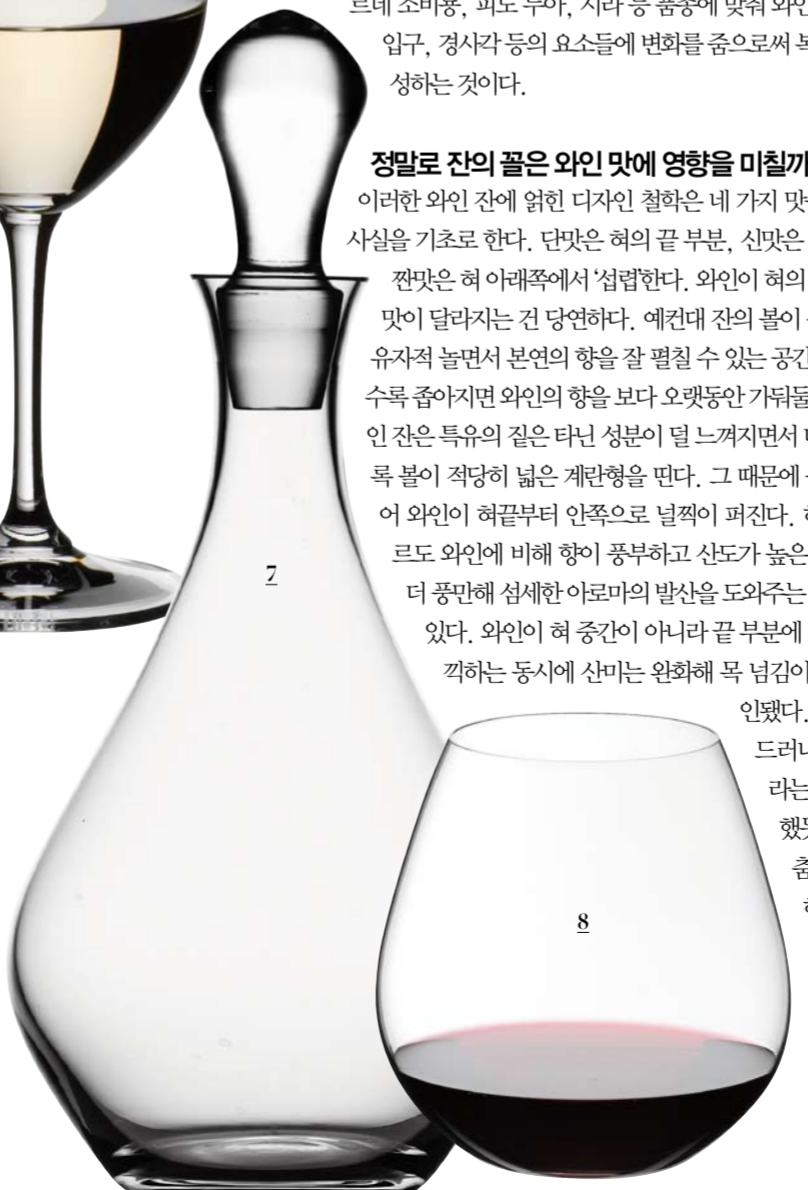
한갓 이름 없는 풀에도 철학은 담겨 있다고 했다. 하물며 인류의 오랜 벗인 술, 그리고 이를 담는 잔에는 얼마나 풍부한 내용과 사연이 배어 있을까. 특히 이 유혹적인 액체를 근사하게 머금은 잔의 디자인은 단지 허세 어린 뉘시오를 위한 '꼴'이 아니다. 오색찬란한 술 세계에서 각각각색의 잔이 품고 있는 예술과 과학의 절묘한 조화는 생각보다 흥미롭고 깊이기도 있다. 먼저, 언젠가부터 우리네 삶에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든 '신의 물방울'을 담은 와인 글라스의 미학을 살펴본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크리스털 잔들이 늘어서 있다 해도, 그 소재와 두께에 따라 잔의 벽을 타고 흐르는 소위 '와인의 눈물'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오묘하게 다를 만큼 섬세한 세계다.

"술잔이 2개 있다. 하나는 매우 세련되고 정교한 무늬가 새겨진 황금 술잔이고, 다른 하나는 투명한 유리잔이다. 물거품처럼 맑고 투명한 유리잔이다. 당신은 (좋아하는) 와인을 따라 마신다. 이때 어느 잔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와인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다." <투명한 술잔,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서

1930년, 영국의 서체 디자인 전문가인 비어트리스 워드라는 인물은 형태보다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는 디자인 방법론을 다룬 한 강연에서, 이처럼 이상적인 타이포그래피를 투명한 술잔에 비유한 표현으로 그래픽 디자인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그녀는 "누구나 한 번쯤은 수백만원짜리 황금 잔을 써보고 싶겠지만 와인 애호가라면 아마도 투명한 크리스털 잔을 골랐을 것"이라며 "투명한 잔은 '내용물'의 아름다움(색깔)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자기 잔이나 금속 잔 대신 '글라스'를 택했다면 그 사람은 단연 '어떻게 보이느냐보다' 어떤 역할인가에 대해 먼저 고민하는 '모더니스트'라고 강조했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는 명제로 대표되는 모더니즘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시절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와인의 색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는 워드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핵심 요소인 '미각'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리에 해당하는 잔대(stem)가 '뿔뿔(bowl)'을 떠받치고 있기에 '스텝웨어(stemware)'로 불리기도 하는 와인 글라스의 비약적인 발전은 20세기 중반부터야 시작됐다. 와인은 그 역사가 1만 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오랜 연륜을 지녔지만, 와인 잔의 경우에는 남이나 크리스털로 만든 제품

이 17세기 말 영국에서 처음 출현했을 정도로 소재와 모양새의 고급화, 과학화가 비교적 늦게 이뤄진 것이다. 워드가 한 세대만 더 늦게 태어났더라면, 아마도 빛깔도 빛깔이지만 잔의 품질은 와인의 맛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크리스털 잔'을 옹호하지 않았을까 싶다. 한 와인이 지니고 있는 부케, 미감, 밸런스 등은 그 와인을 담는 잔의 모양과 품질에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말이다. 이러한 논거를 미학과 과학의 조화를 담은 '작품'으로 뒷받침한 세기적 혁신의 주인공은 '진정한 모더니스트'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고(故) 클라우스 J. 리델(1925~2004)로, 2백50년 넘게 유리 제품을 만들어왔다는 오스트리아 리델(Riedel) 가문의 9대손이다.

바우하우스의 철학을 연상케 하는 와인 글라스 디자인 왕국 리델
 '와인 글라스의 대부'로 통하는 클라우스 리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다음, 부친과 함께 잠파티에서 다시 가문을 일으킨 '오퓌이 근성'이 있는 인물이었다. 당시 스와로브스키 가문의 지원으로 화학을 공부한 그는 이학도 출신답게 분석적인 데다가 뛰어난 심미안까지 갖췄다. 1973년에 처음 선보인 '소믈리에 시리즈'는 이러한 복합적인 자질과 열정의 산물이다. 그는 이탈리아 중부 도시 오르비에토에서 소믈리에들과 한 가지 와인을 여러 가지 모양의 글라스에 따라 마신 뒤 가장 완벽한 맛을 표현해주는 글라스를 찾는 실험을 했는데, 이를 통해 와인의 특징에 따라 잔의 크기와 모양이 달라야 한다는 결론을 얻고는 야심 차게 실천에 옮긴 것이다. 내공이 만만찮은 장인들이 직접 입으로 불어 만드는 수공 작업으로 탄생한, 다리가 길고 날렵하며 매끈한 데다 뿔뿔에 무늬가 없는 이 시리즈는 표면에 분양을 새기고 색깔을 입힌 화려한 잔들이 판을 치던 당시에는 그야말로 파괴적 혁신이었다. 특히 커다란 볼을 감싸는 우아한 곡선미가 몹시도 빼어난 부르그뉴 그랑 크뤼 잔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받아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영구 소장품으로 전시되고 있다. 실용성을 주축으로 한 절제미를 중시한 바우하우스의 철학에 영감을 받은 듯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장식을 배제했는데도 은근히 아르누보풍의 섬세하고 풍부한 감성을 담고 있는 리델의 와인 잔. 중요한 건 이러한 디자인에는 존재의 이유가 뚜렷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와인의



1 포도 품종에 맞게 수공으로 제작된 라델의 최상위 라인인 소믈리에 블랙타이(Black Tie) 시리즈. 1958년 디자인한 상징적인 뿔뿔인 소믈리에 부르그뉴 그랑 크뤼(왼쪽에서 세 번째)의 탄생 50주년 기념으로 검은 스텝과 와인과 검은 반창(와이트 와인)을 넣은 컬러. 2 뿔뿔에 담은 라델 디켄터 에스카르고(Escarago). 3 라델 브랜드의 대중화를 견인했던 10대손 게오르크 라델이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여 인기를 모은 Vinum 시리즈의 카렌트/리슬링 잔. 최고의 대용도 잔으로 꼽힌다. 4 5 하이엔드 글라스 메이커들은 장인이 입으로 직접 불어 만드는 프리미엄 제품을 선보인다. 6 크루그(Krug)처럼 레드 와인에 비교되는 복합성을 지닌 샴페인에는 화이트 와인 글라스와 유사한 잔을 추천한다. 모엠헤네시에서 라델과 합동하여 5월 선보인 크루그 전용 잔 'The Joseph'. 7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명성 높인 크리스털 브랜드 슈피겔라우의 그랑벨레 디켄터. 8 라벨 기운의 공식 후계자 11대손 막시밀리안 라델이 주도해 내놓은 '오스리츠의 파노 누아' 잔. 스텝 없는 개성 강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9 프랑스 이크 인터뷰(이탈리아 와인 글라스 브랜드 세프렌스)에 구미(이탈리아)의 라델이 인성적인 오펜업 시리즈.

인간의 오감에 제공하는 메시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잔의 폼과 소재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미학적 감성을 입힌 디자인이라는 주장이다. 와인 문화가 점점 더 확산되면서 갈수록 많은 이들이 이러한 '술잔의 철학'에 힘을 보태는 듯하다. 현재 리델 말고도 독일의 슈피겔라우(Spiegelau)와 프랑스 브랜드인 세프렌스(Seppren)에 등 부르도, 부르그뉴, 스파클링 와인, 화이트 와인 등 와인 종류에 따라 디자인한 크리스털 잔을 만드는 글라스 메이커들이 활약하고 있다. 잔의 과학에 유독 고집스러운 정도로 열중해온 리델은 단지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 등으로 와인을 나누지 않고 개별 품종의 특성에 따른 제품군을 내놓고 있다. 카베르네 소비뇽, 피노 누아, 시라 등 품종에 맞춰 와인 글라스의 볼 크기, 지름, 높이, 입구, 경사각 등의 요소들에 변화를 줌으로써 복잡다단한 디자인 스펙트럼을 완성하는 것이다.

정말로 잔의 꼴은 와인 맛에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와인 잔에 얽힌 디자인 철학은 네 가지 맛을 느끼는 혀의 부위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초로 한다. 단맛은 혀의 끝 부분, 신맛은 양옆, 쓴맛은 목에 가까운 안쪽, 짠맛은 혀 아래쪽에서 '섭렵'한다. 와인이 혀의 어느 부위에 먼저 닿는지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 예컨대 잔의 볼이 통통하면 와인이 산소와 만나 유전자적 놀면서 본연의 향을 잘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창출된다. 또 입구가 위로 갈수록 좁아지면 와인의 향을 보다 오랫동안 가뒀을 수 있다. 따라서 부르도 레드 와인 잔은 특유의 짙은 타닌 성분이 덜 느껴지면서 다층적인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도록 볼이 적당히 넓은 계단형을 띤다. 그 때문에 볼부터 입구까지 경사가 거의 없어 와인이 혀끝부터 안쪽으로 넓찍이 퍼진다. 하지만 같은 레드 와인이라도 부르도 와인에 비해 향이 풍부하고 산도가 높은 부르그뉴 잔의 경우, 볼 부분이 더 풍만해 섬세한 아로마의 발산을 도와주는 한편 입구가 살짝 바깥으로 말려 있다. 와인이 혀 중간이 아니라 끝 부분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향을 오래만 끄는 동시에 산미는 완화에 목 넘김이 부드러워지도록 정교하게 디자인됐다. 와인 잔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은 (보통날의 와인)이라는 책을 펴낸 박찬일 셰프도 지적했듯이 샴페인일 것이다. 방울방울 춤추는 기포를 오래 잡아두기 위해 보통 플루트처럼 생긴 기다란 잔을 쓰는데, 특급 빈티지의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크루그(Krug)와 같은 프리미엄 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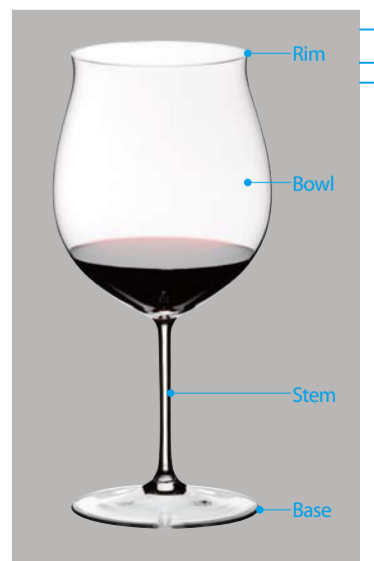
인의 경우엔 부르도 특급 레드 와인에 비견되는 깊은 풍미를 지녀, 중간은 넓게 퍼졌다가 끝 부분은 좁아지는 잔을 권유한다. 이러한 잔에 따른 맛의 차이는 한 품종의 와인을 각기 다른 잔에 담아 시음해 보는 '글라스 테이스팅'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화이트 와인 중에서 갓 벤 풀의 신선한 내음이 난다는 소비뇽 블랑을 마신다고 치자. 향이 잘 발산되도록 비교적 몸통이 넓지 않고 입구가 좁은 전용 잔을 사용하면 코를 입구에 갖다 대기만 해도 상큼한 향이 쭉 올라오는 느낌이다. 이를 들레는 더 좁지만 입구가 얇지 않고 다소 몽롱하게 말린 듯한 저가의 '조커 잔'으로 바꿔 들어켜보면, 혀 양쪽으로 와인이 무분별하게 떨어지면서 섬세한 뉴앙스가 수그러드는 게 감지된다. 이를 종이컵에 옮기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종이냄새가 와인 본연의 향을 음미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얼굴이 절로 찌푸려진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향이 날아가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심 섞인 질문이 절로 솟구친다. 그런데 이 와인을 다시 처음 사용한 전용 잔에 따라 붓고 들어켜면 원래의 상쾌한 아로마가 거짓말처럼 다시 느껴진다. 이번에는 다른 화이트 와인 품종인 샤르도네와 비교, 대개 샤르도네 잔은 오크 통 숙성을 거친 특유의 목격한 향이 잘 발산되도록 잔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고 볼은 넓다. 와인이 입안에 떨어지면 혀 전체를 감싸면서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를 소비뇽 블랑 잔에 옮기면 맛이 달라진다. 무겁지 않은 과일 향은 잘 올라오는 편이지만 혀 뒤 쪽에서 쓴맛이 나면서 왓지 거친 질감이 느껴진다. 전체적인 균형감이 깨진 것이다. 믿기 힘들다면, 한번 몸소 참여해볼 것을 권유할 만한 흥미로운 체험이다.

크리스털의 과학

와인 하나 마시는데 왜 그렇게 번잡스럽게 신경을 써야 하나야 불멘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와인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저마다 취미에 대한 열정의 농도가 다르고 예산의 여유에도 차이가 있을 테니 일리 있는 말이다. 와인을 둘러싼 세계의 면면을 날카롭게 다룬 <와인력>을 저술한 맷 크레이머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좀 지나친 것은 아닐까?"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각 와인에 맞는 특수한 글라스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미식가가 다양한 형태의 식기를 갖추고 있듯이, 몇 가지 정도 갖추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신의 와인 잔 컬렉션 규모를 어떻게 꾸려가든 간파하지 말아야 할 점은, 사기로 마음먹었다면 제대로 된 제품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베스트셀러 <와인 시크릿>의 저자 마니 올드는 무늬가 없고 투명하며, 편하게 잡고, 실용적이며 입구 가장자리가 가장 얇은 잔을 고르라고 조언한다. 가장 훌륭한다는 소재는 크리스털인데, 여기에도 성분별 차이와 질 종류가 있다. 리델처럼 와인이 지닌 본연의 향을 극대화한다는 산화엔(PbO)을 함유한 '레드 크리스털' 제품을 갖춘 브랜드, 그리고 슈피겔라우나 쇼트스워젤, 세프렌스(Seppren)처럼 플래티넘, 티타늄 등을 섞어 만든 '무연 크리스털' 잔을 보유한 브랜드들도 있다. 이 중 가장 '하이엔드'로 여겨지는 레드 크리스털 잔은 일반 유리잔보다 무겁고 경쾌한 소리가 나며 투명도도 뛰어나지만, 깨지지 않도록 잘 다루야 한다. 전용 글라스의 사용을 강력 추천하는 샴페인의 경우, 많은 전문가들이 레드 크리스털 제품이 무게를 실어준다. 와인 속에 갇혀 있던 이산화탄소가 글라스의 거친 면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기포가 생기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육안으로도 볼 수 없는 미세한 요철을 표면에 품은 크리스털 잔에 공기방울이 더 활기차게 피어난다는 것이다.

와인의 영혼을 일깨우는 매력적인 도우미, 디켄터

이 밖에 와인을 즐기는 데 잔과 함께 짝을 짓는 유용한 도구로 디켄터를 빼놓을 수 없다. 와인의 향을 일깨우는 도우미인 디켄터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사용하기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품목이다. '올드 와인의 경우에는 침전물을 걸러주는 효과가 있고, '어린 와인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 기포에 노출시켜 '깨어나게 만든다'는 '브리딩'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와인이나 와인 글라스에 비해 다루기가 비교적 쉽다. 특별히 이상적인 모양새도 없고, 디켄팅 과정에 어려운 도구나 장식이 필요하지도 않다. 뱀, 달팽이, 오리 등 각종 생물의 유기적인 곡선을 근사하게 풀어낸 디켄터부터 피사의 탑과 같은 유적이나 건축물을 연상케 하는 디켄터까지... 아름다운 디켄터에 와인이 깨끗하게 채워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일종의 카타르시스쯤 느낀다는 이들이 꽤 많은 걸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면서 체득하는 것이다. 와인과 함께 어울어지는 인생에서 크리스털 잔이든, 디켄터든 결국 우리의 벗일 뿐이지 정복 대상이 아니니 말이다. **18** 에디터 고성연



TIP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마이클 린크와 아그리프 모티브에서 영감을 얻은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1천9백2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33.65캐럿을 사용했다. **까르띠에**, 173,99캐럿의 블랙 페시 비즈 다이아몬드로 체인을 완성하고 화이트 골드에 2백55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5,477캐럿을 사용한 누엣 드 디아망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밤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느낌을 표현했다. **샤넬 화인 주얼리**, 불꽃을 넘치는 핑크 사파이어를 강한 빛을 정교하게 표현한 핑크 피터(Pyrite) 볼드 링, 부세온 특유의 섬세한 감성, 놀라운 세공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부세온**, 79개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2,40캐럿을 사용한 스크롤레주 드 까르띠에 하이 주얼리 브로치, 마치 향기가 날 것처럼 싱그러운, 한 송이 꽃과 같은 하이 주얼리 브로치다. **까르띠에**,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브레이슬릿에 투명한 록 크리스탈로 사자를 표현한 독특한 디자인의 라이언 브레이슬릿. **샤넬 화인 주얼리**, 마치 하늘로 날아오를 듯 생동감 있는 것들을 표현한 하이 주얼리 마가렛 이어링, 화이트 골드에 다양한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리듬감 있게 사용했다. **부세온**, 에디터 베이진

부세온 02-543-6523 샤넬 화인 주얼리 02-3442-0962 까르띠에 1566-7277

beautiful Adventure

하이 주얼리의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흐른다. 달콤하지만 우아한 핑크, 밤하늘을 수놓은 별, 용맹한 사자, 더 이상 섬세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의 향연.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CÉLINE

Perfectly formed

여성미와 단아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싶다면 담백한 디자인의 스퀘어 워치가 제격이다. 작지만 강인하며, 클래식함을 담고 있는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스퀘어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 **브라게 헤리티지 문페이즈 8860** 문페이즈 레트로그라드, 마더오브빌 다이얼, 로마자,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등 많은 요소가 담겨 있지만 절제된 우아함을 보여주는 클래식한 모델. 문페이즈에 그려진 달 표면에 링크 마크를 새긴 유아가 볼 보인다. 스퀘어 형태지만 18K 로즈 골드 소재 곡선 토너먼트 케이스가 독특하다. 3천2백만 원대, 문의 02-3438-6218

에르 르몽트르 그랑 라베르스 레이다 울트라 빈 스틸 소재에 링크 골드를 더해 합리적인 디자인의 스퀘어 워치. 두 가지 소재를 더해 연출한 콤팩트 워치인 만큼 질리지 않고 오래도록 착용할 수 있다. 두께가 7.17mm에 불과해 날렵하고 여성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1천3백만 원대, 문의 02-756-0300

파르미리아니 갈파 파플라 고급 시계에 보석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더한 여성용 워치. 파르미리아니의 대표 컬렉션으로 칼리타가 뛰어난 인트로 완성한 햇살 모양 다이얼이 아름답고, 손목을 감싸는 유선형의 인체 공학적 스틸 브레이슬릿 디자인 덕분에 착용감이 편안하다. 가볍게 완성하기 위해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했다. 1천1백만 원대, 문의 02-3479-1986

비세르 콘스탄틴 1972 랭버 스물 웨이브 여성스럽게 변형된 디자인의 스퀘어 워치. 거울과 같이 깨끗하게 폴리싱한 다이얼 면과 스텝링 효과를 내는 12시, 6시 표시가 독특하다. 1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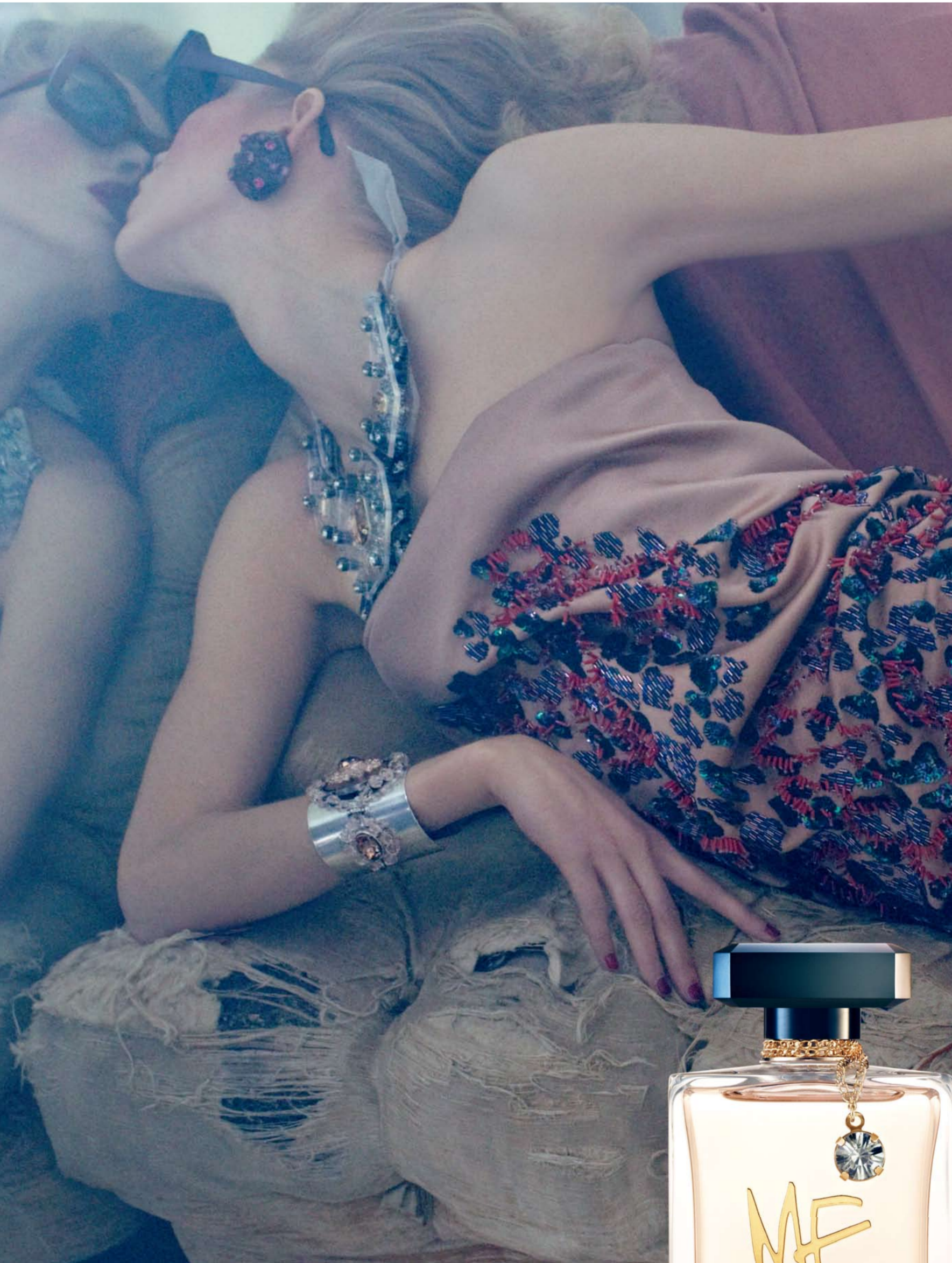
5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가 케이스와 다이얼을 유기적으로 휘감고 있다. 브랜드 고유의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것은 물론이다. 3천만 원대, 문의 02-3449-5930

카르띠에 탱크 루이 카르띠에 워치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디자인의 워치. 18K 골드 케이스에 로마자가 새겨진 화이트 다이얼, 브라운 옐로게이트 스토클램을 매치해 극도의 클래식함을 표현했다. 예를 시계로도 자랑받는 디자인이다. 절제된 직사각형 프레임 오른쪽을 장식한 블루 사파이어 키보숭이 멋지다. 1천1백만 원대, 문의 1566-7277

샤넬 화이트 주얼리 2013 프리미에르 워치 1987년 샤넬이 주얼리의 수도라 불리는 파리 방돔 광장의 8자 형태의 황수 N°5의 병뚜껑 모양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최초의 여성용 시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워치다. 클래식한 디자인을 변형해 올해 새롭게 선보인다. '시계를 지배하는 여성을 위한 시계를 모토로 체인 모터브의 대담한 디자인을 민낯할 수 있다. 1천1백38만 원, 문의 02-3442-0362

부세르 리틀레 미드모아젤 워치 1958년 처음 선보여 브랜드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워치. 주름을 연상케 하는 케이스가 정교하다. 간단하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는 특허받은 기능을 갖춘 워치로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템이다. 다이얼에는 브랜드 로고만이 심플하게 새겨져 있다. 3백만 원대, 문의 02-543-6523 에디터 배미진

www.lanvinparfums.fr



LANVIN
PARIS

Candy bags

단지 사이즈만 작아졌을 뿐인데,
더욱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코닉 백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올 레이디 디올 백 부드러운 양귀주 소재
에 화려한 바이올렛 컬러를 입힌 여성스러운 백, 브랜드를 대표하
는 디자인이다. 홀더 스트랩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23×20cm
₩960만원, 문의 02-518-0277

샤넬 트리아 백 3개의 지퍼를 나뉜 양귀주 소재 크로스 백, 전 세계
적으로 사랑을 기록할 만큼 사랑받는 디자인이다. 심플하면서도 실
용적이다. 14×22cm 1백20만원, 문의 02-3438-6014

프라다 사피아노 프라메이드 백 감쪽같은 앙증맞은 사이즈의 사
피아노 백, 스테디셀러 디자인을 작은 사이즈로 재해석해 귀여움을
더했다. 최근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기본 사이즈의 사피아노 백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면 작은 사이즈를 세트로 구매해도 좋다. 24×
20cm 1백88만원, 문의 02-3218-5331

샤넬 보이 샤넬 최근 샤넬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는 보이 샤넬 백의
미니 사이즈, 작지만 강력한 블루 컬러 덕분에 존재감이 확실하다.
볼트한 체인과 레더 스트랩을 다한 더블 스트랩이 매력적이다. 13
×20cm 7백만원, 문의 02-546-0228

말즈 로렌 블루 라벨 이베스트리안 보스톤 백 기본적인 보스톤 백
에 화려한 옐로 컬러를 입혀 볼거움을 가득 담았다. 심플한 디자인
에 눈에 띄는 컬러를 더해 소장 가치를 높였다. 25×18cm 1백75
만원, 문의 02-6004-0133

구찌 소우 디스크 백 고전적이고 빈티지한 모티브를 그대로 따온
크로스 백, 가방과 같은 소재의 가죽으로 매끈한 테슬라 디테일이 경
쾌하다. 16×20cm 1백28만원, 문의 1577-1921

루이 비통 모노그램 베르니 앙증맞은 미니 사이즈로 재탄생한 모
노그램 베르니 백, 화려한 레드 컬러에 페이퍼트 소재가 사랑스럽
다. 평소 큰 사이즈의 페이퍼트 소재 가방이 부담스러웠다면 도
전해볼 만하다. 24×17.5cm 1백80만원, 문의 02-3444-
1727 에디터 배미진



DERERCUNY

롯데 본점 4층 02-772-3488 / 롯데 잠실점 4층 02-2143-7422 / 롯데 평촌점 3층 031-8086-9326 / 롯데 중동점 4층 032-320-7391 / 롯데 센텀시티점 2층 061-730-3352 / 롯데 울산점 2층 052-960-5580
 롯데 대전점 4층 (오픈예정) / 갤러리아 안주점점 3층 02-6905-3398 /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2층 042-720-6287 / 갤러리아 수원점 2층 031-223-8860 / 갤러리아 센텀시티점 2층 041-412-9225
 신세계 센텀시티점 3층 051-745-2750 / 현대 신촌점 5층 02-3145-2458 / 현대 충정점 2층 043-999-2270 / AK플러자 분당점 2층 031-707-7337



브랜드 시그니처 로퍼에 스티드로 위트를 더한 1953 컬렉션 로퍼 1백20만원 **구피**.



작은 원형 스티드로 포인트를 준 테슬 로퍼 90만원 **차치스 by 10 꼬르소 꼬모**.

Shoe obsession

스타일에 재미와 센스를 더하고 싶다면 클래식 아이템을 살짝 비튼 위트 있는 디자인을 선택할 것. 화려한 스티드 장식은 물론 사랑스러운 리본 디테일, 비비드한 컬러를 적용하는 등 트렌디한 요소를 곳곳에 가미한 남성 클래식 슈즈.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구피 1577-1921 10 꼬르소 꼬모 02-3018-1010
루이 비통 02-3444-1727 프리다 02-3218-5331
토즈 02-3438-6008 발랑 02-6905-3585
다음 올므 02-518-0270 퍼치오티 02-545-8757



보타이를 연상케 하는 리본이 돋보이는 벨벳 텍스처 슈즈 1백10만원 **루이 비통**.



구두 옆면에 리본 여밈 장식을 더해 개성을 살린 옥스퍼드 슈즈 77만원 **토즈**.



레드 스트랩과 스티치 장식이 감각적인 옥스퍼드 슈즈 1백만원대 **다음 올므**.



와인 컬러의 밴드 장식과 라인이 멋스러운 드레스 슈즈 90만원대 **프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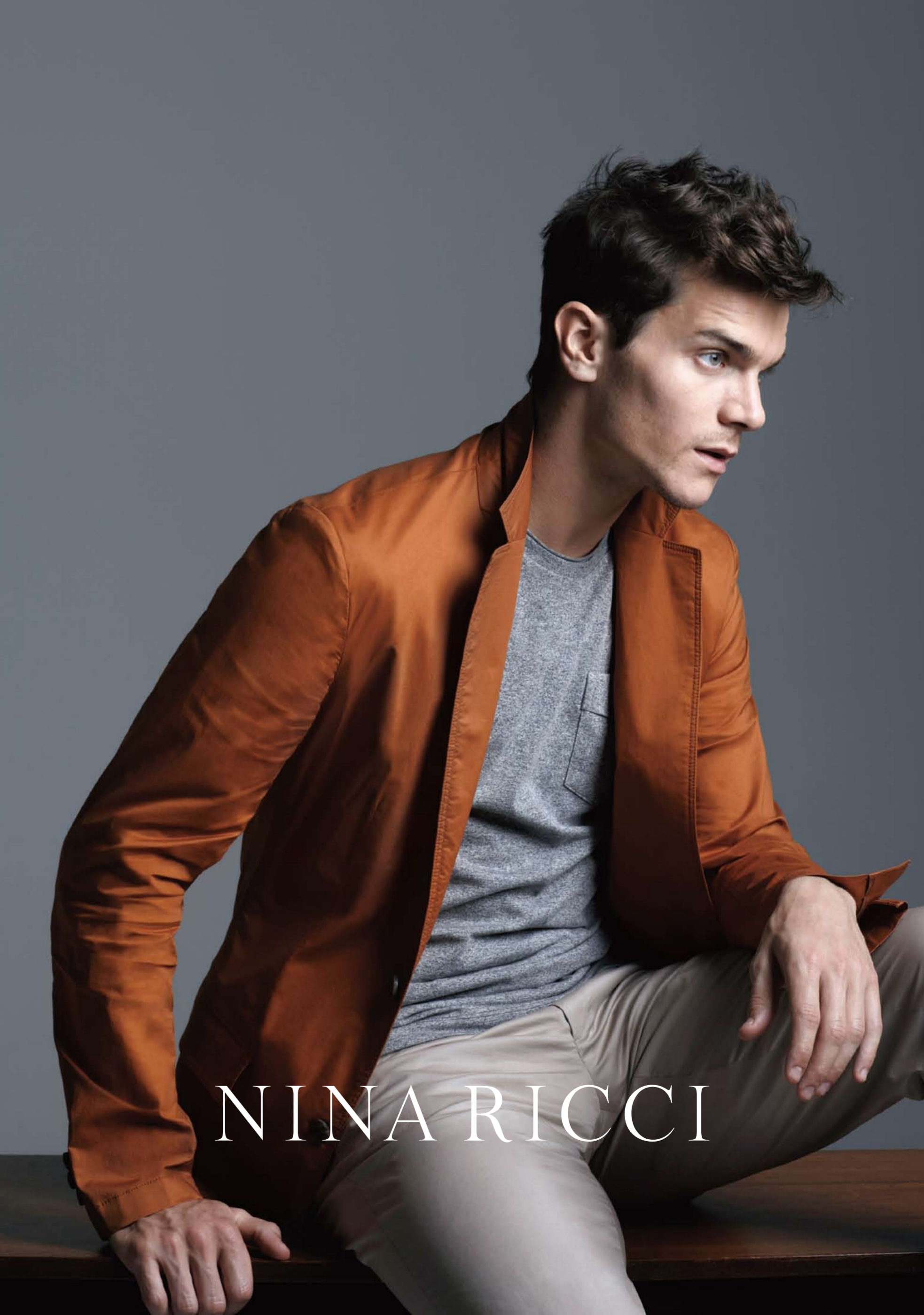


매탈 장식과 고무 밑창, 질감이 특이한 가죽이 돋보이는 로퍼 1백83만원 **발랑**.



도트 패턴을 편창한 가죽 소재를 댄트 드레스 슈즈 87만원 **퍼치오티**.

스타일리스트 유원정 에디터 권유진



NINA RICCI



Monochrome chic
블랙&화이트의 매칭은 시즌과 유행을 막론하고 세련된 룩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스카프 가격 미정 **마르니**, 시퀀 소재 핸드백, 19.5x19.5cm, 5백20만원대 **루이비통**, 스트랩 슈즈 1백만원대 **샤넬**, 스트라이프 코튼 쇼퍼백, 33x32cm, 47만원 **올라**, 레이스업 슈즈 98만원 **마크 제이콥스**, 슬림 슈즈 1백98만원 **주세페 자노티**.



Check wave

2013 S/S 루이 비통 컬렉션에서 보듯 각자 무늬의 패턴끼리 과감하게 매칭하거나 포인트 액세서리로 활용해볼 것.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옐로 파우치 20만원대 **피에르 하디 by 루이 비통**, 디미에 패턴의 스피디백, 20x19cm, 3백70만원대 **루이 비통**, 시퀀 소재 펌프스 1백60만원대 **루이 비통**, 블랙과 블루 컬러 슬더백, 16x25cm, 4백만원대 **샤넬**, 하이힐 스니커즈 60만원대 **피에르 하디 by 루이 비통**.

optical Scene

옷차림에 리드미컬한 변주를 더해줄 형형색색의 옵티컬 프린트를 주목할 것. 경쾌한 스트라이프를 비롯해 도트 무늬, 몬드리안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면 분할 패턴까지 그래픽적인 옵티컬 프린트가 이번 시즌 강력한 트렌드로 부상했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Mondrian gallery
몬드리안의 그림을 연상시키는 면 분할 패턴 가방과 슈즈를 눈여겨볼 것.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선글라스 60만원대 **드미트리 사발 by 올티갈 W**, 오픈트 스트랩 샌들 1백44만원 **마크 제이콥스**, 편지봉투 모양의 클러치백, 21x32cm, 2백만원대 **셀린**, 회화적인 색채가 묻어나는 미니 바게트백, 22x36cm, 2백92만원 **펜디**, 구조적인 형태의 슈즈 2백13만원 **펜디**.



Revival dot

모던하게 재해석된 도트 무늬로 룩에 활력을 더해보자.

(맨 위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도트 지갑 80만원 **마크 제이콥스**, 뱅글 2백25만원 **델리나 엘레테르즈 by 마이분**, 독특한 클러치백 1백56만원 **DVF**, 송치 앵글 슈즈 79만5천원 **오프닝 세레모니 by 비이커**, 등진 지갑 11만8천원 **올라**, 실버 토트백, 34x34cm, 75만9천원 **폴리츠 폴리츠**, 에디터 이예진



My Story, My Design



Introducing the Spring Collection.
Worn by Ko So Young, trendsetter in Korea.
Get inspired by Ko So Young's story and see her design at pandora.net/ko-kr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02 3438 6096 무역센터점 02 3467 8491 천호점 02 2225 7137 롯데백화점 본점 02 772 3069 잠실점 02 2143 7142 노원점 02 950 2294 대구점 053 660 3117 울산점 053 660 3117 부산본점 051 810 308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 3479 6092 영등포점 02 2639 4099 광주점 062 360 1377 선릉시티점 051 745 2216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042 720 6180 AK PLAZA 수원점 031 240 1819 대백프라자점 053 253 0980 호텔 신라 면세점 02 2230 1308 호텔 롯데 면세점 월드컵점 02 2147 6543 인천공항점 032 743 7795

한국 공식 수입원인 (주)스타럭스에서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위의 매장을 책임, 관리, 운영하며, 위 매장에서 구입하신 제품에 한하여 제품 보증을 해 드립니다.

PANDORA
UNFORGETTABLE MOMENTS

공식 수입원 (주)스타럭스 www.starluxe.co.kr

마크 제이콥스 02-3446-8883 올티갈 W 02-6911-0845 셀린 02-6905-3481 펜디 02-2056-9023 마이분 02-6947-1270 DVF 02-3442-7114 폴리츠 폴리츠 02-514-4454 올라 02-759-0544 비이커 02-543-1270 마르니 02-6905-3665 루이비통 02-3432-1854 샤넬 02-546-0228 주세페 자노티 02-543-1937 루이비통 02-3446-8074

스타럭스 유행정보

Powerful moisture

생명을 막론하고 피부 관리의 기초는 수분 공급이다. 유분이 넘쳐나고 심하게 번들거리는 남자의 피부에 봄비와 같은 촉촉함을 선사해줄 수분 제품을 소개해볼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맨 윗단부터 차례대로) **방울 맨 워터리 로션** 세안 후 남아 있는 노폐물이나 각질을 닦아내고 수분을 채워주는 워터 타입인 로션. 피부를 정화하는 과잉 SA와 마다나소 글루코산염이 얼룩덜룩한 피부 톤을 고르게 하고 인색을 한층 밝게 밝혀준다. 시트러스와 아로마틱, 우디를 결합한 상쾌한 토닉 향이라 리프레시 효과도 얻을 수 있다. 200ml 4만5천원, 문의 080-022-3332

랩시리즈 워터 로션 아시아 남성을 위해 개발한 보습 스킨. 가볍고 끈적이지 않는 워터 타입이라 특히 자성 피부에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다음 스킨케어 단계인 모이스처라이저의 흡수율을 높이는 부스터 기능을 겸했다. 200ml 4만5천원, 문의 02-3440-2879

카엘 스킨 퓨얼 고르지 않은 피부결을 정리하고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지친 피부의 피로를 풀어주는 활력 수분 모이스처라이저. 비타민 C와 E를 비롯해 밤 추출물, 카페인 등이 풍부한 오일 프리 타입이라 트러블을 진정시키고 수분을 채워주는 데 효과적이다. 125ml 4만5천원, 문의 080-022-3332

비오렘 올드 아쿠아피워 모이스처라이저 스파 워터, 미세 알, 비타민 등 보습력이 우수한 성분을 농축한 비오렘 올드 베스트셀러 로션. 젤 타입 텍스처는 클링 효과가 있어 남아 있는 피부를 진정시키기도 좋다. 심하게 번들거린 피부 속은 수분이 부족한 남성에게 효과적이다. 75ml 5만 원대, 문의 080-022-3332

크라리너 SSFM 맥시멈 하이드레이터 활성 알로에 성분 이 건조함에 시달리는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남성 전용 수분 크림. 꾸준히 사용하면 표정 주름이나 잔주름이 없어지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알레르기 테스트를 거쳐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끈적하고 러쉬한 질감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50ml 5만 원대, 문의 02-3440-2773

클라리너 맨 수퍼 모이스처 젤 자연 성분의 칼슘 히알루론산 네이처가 피부의 수분 메카즘을 활성화하고 피부 방어막을 강화하는 수분 크림. 진정 효과가 탁월한 알미닌 시올리 추출물이 면도 후 따끔거리는 피부나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빠르게 다독여준다. 젤과 밤 두 가지 텍스처로 선보이므로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50ml 5만 원대, 문의 080-542-9052

필립스 센스타치 3D 입체 면도 헤드의 아쿠아겔 면도 방식을 갖춘 전기 면도기. 인턱으로 360도 회전하는 3D 입체 헤드 방식 기술인 자이로볼렉스 3D를 통해 턱이나 목 등 까다로운 얼굴 곡선까지도 섬세하게 면도할 수 있다. 41만 원, 문의 02-709-1200

시세이도 맨 모이스처라이징 에디션 젤은 면도로 손상된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피부 재생 능력을 촉진하는 신뜻한 에디션. 하얗게 일어난 피부 각질을 정돈해주고, 표정 주름이 자리 잡는 것을 막아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든다. 쉽게 퍼지는 가벼운 로션 재형이라 여러 번 덧발라도 부담이 없다. 100ml 4만8천원, 문의 080-564-7700

조르지오 아르마니 마스터 로션 수분 공급, 주름 방지, 탄력, 피지 조절, 피붓결 등 남성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고농축 에센스-인-로션. 끈적이지 않는 신뜻한 재형이 피부에 닿는 순간 생체활성을 선사하고, 면도 후 울긋불긋해진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킨다. 아르마니의 시그니처 향수인 프리베 캄페시온의 향을 담아 진정력이 남성적이고 고급스럽다. 100ml 7만2천원, 문의 080-022-3332

렌 맥스 모이스처 콘센트레이트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렌의 대표적인 수분 집중 세럼. 히알루론산과 폴스산 달우드 시 오일 추출물이 피부 표면에 강력한 보습막을 형성해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뿐만 아니라, 링코베리 시드 오일에서 추출한 알파 리놀레산 바이오 액티브가 피부 스스로의 힘을 키워 건강하게 가꿔준다. 30ml 8만3천원, 문의 02-6030-8840

SK-II 모이스처라이징 클렌저 눈에 보이는 노폐물과 피부는 물론 비타라이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클렌저. 피파라 성분은 피부에 보습막을 씌워 세안 후에도 쉽게 말라지 않으며, 멘톨 향과 건조함의 상해함이 기본 좋은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120g 7만 원대, 문의 080-023-3333에 더 자세한



TRUE PRODUCTS, REAL PEOPLE



사람보다 높은 산은 없다
다가가기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힘들다
그래도 올라야 할 산이라면

진실하라
진실하라

진실이 온다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Luxe tech

알록달록한 컬러에 감각적인 디자인을 겸비한 테크 케이스로 일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 이번 시즌 잇 백과 슈즈만큼이나 매력적인 패셔너블한 테크 케이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기하학 패턴의 닷 북 케이스 43만5천원 **오리자날 페이크 by 비아커**, 메탈릭한 옐로 컬러의 폴더형 아이패드 케이스 95만원 **버버리 프로셀**, 가죽의 질감이 살아 있는 레드 컬러 갤럭시 S3 케이스 28만원 **플레시엔가버나**, 컬러풀한 USB 미니 케이블(3개 한 세트) 3만9천원 **인케이스**, 진한 자주색 아이패드 케이스 15만8천원 **올라**, 블루 컬러와 그레이 컬러 가죽 소재의 8GB USB 각각 30만원대 **에르메스**, 약가죽 무늬의 핑크 컬러 아이폰 5 케이스 27만9천원 **엘도노반 by 로열아일**, 타조가죽 소재의 블루 컬러 아이폰 케이스 가격 미정 **프라이드**, 그린 컬러의 벨가죽 핸드폰 케이스 43만원 **랑방 울프**, FF 로고 패턴의 프리 스킵프 22만원 **렌디**, 진한 옐로 컬러의 소가죽 아이폰 케이스 19만5천원 **릴프 로렌 블루 라벨**, 화이트 아이폰 5와 아이패드 4세대, 맥북에는 애플 **코리아**, 에디터 **이베진**

비아커 02-543-1270 버버리 프로셀 02-3485-6583 플레시엔가버나 02-3444-0077 올라 02-759-0544 인케이스 02-3442-1014 릴프 로렌 블루 라벨 02-545-8200 렌디 02-2056-9023 랑방 울프 02-6905-3635 프라이드 02-3218-5331 에르메스 02-5444-7722 로열아일 02-3438-6142 애플 코리아 080-330-8877

스타일링: 유영정

DISCOVER THE LEGEND



스카치 위스키를 예술과 장인정신의 결정체로 승화시킨 조지 발렌타인. 그의 업적은 발렌타인만의 휘장을 통해 인정받았다. 고귀한 유산과 전통을 숭배하고 끊임없는 열정과 혁신성의 결과물로서 칭송받는 그의 업적은 '모든 인류의 친구(Amicus Humani Generis)'라는 시공을 초월한 발렌타인만의 모토를 오늘날까지 실현 가능케 하며, 그 스토리는 모든 이에게 살아있는 전설로 이어져온다.

치나친음주는 건강이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Ballantine's

LEAVE AN IMPRESSION

한류를 넘어 제품력으로 승부한다

한류 뷰티 스트리트라는 애칭까지 생긴 명동 화장품 매장의 한 달 매출은 무려 10억원. 연 매출도 아닌 월 매출 금액이다. 화장품 매장에 진출을 늘려선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까지 무려 4개 국어를 구사하는 매장 직원들, 개인 통역사와 함께 명동과 가로수길 일대의 뷰티 매장을 투어하는 외국 관광객들을 보면 여기가 한국이 맞나 싶다. 사실 한류 열풍과 K-뷰티를 주도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뷰티 강국인 일본이다. 화장품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장품을 사러 온다는 것은, 일본 화장품이 유행하던 1990년대의 한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한 발전이다. 예를 들어 설화수는 일본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는데, 놀라운 것은 설화수가 아직 일본에 진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잠실 롯데백화점에 있는 설화수 스키에 연일 일본 고객의 예약이 끊이지 않고, 설화수를 사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일본 고객이 있을 정도다. 또 아모레퍼미픽의 신제품인 트리트먼트 CC쿠션은 미국과 일본에 론칭하기도 전에 벌써 입소문이나, 면세점 베스트셀러 아이템 1위를 기록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코리아 뷰티 열풍이 비단 아시아뿐만이 아닌 미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매미크업 따라 하기 동영상이 유럽 전역에서 상위 랭킹에 오르는가 하면,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BB크림은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앞다투어 소개할 만큼 트렌드를 넘어 전 세계 여성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뷰티 전문가인 한국 소비자를 사로잡다

그렇다면 뛰어난 제품을 개발하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동안 단순히 한류 스타가 쓰는 화장품으로 언급되던 한국 화장품이 보다 세련되고 기발한 형태, 명품 화장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품질로 글로벌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간간하고 똑똑한 한국 소비자들 때문이다. '뷰티 백공이, 자람이 화장품' 등 신조어가 탄생하고, 뷰티 블로그는 물론 각종 뷰티 커뮤니티가 수천 개에 이르는 지금, 한국 시장에는 말 그대로 뷰티 불이 일고 있다. 뷰티 커뮤니티를 들여다보면 립스틱 후기 하나에 달리는 댓글과 유사 제품 비교 리뷰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뷰티 블로그가 올린 화장품 후기의 분석력과 전문성은 어느 전문가 못지않다. 기름종이를 사용한 유분기 테스트, 시간이 경과한 후의 지속력, 다른 제품과의 상세한 매치법과 하우투까지, 전

문기에 버금가는 자세하고 직접적인 후기 예 사람들이 열광한다. 이런 소비자 상황에 '뷰티 실험실'이란 이름의 칼럼이 특정 잡지의 대표 기사가 될 정도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문, 잡지, TV 광고와 같은 방송 매체에에만 화장품 광고나 후기를 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브랜드 온라인 사이트, 블로그, 케이블 뷰티 전문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방위적인 마케팅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처럼 피드백이 빠른 다방면의 뷰티 매체가 발달한 것은 한국 시장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다. 이제 그저 좋은 제품, 연예인이 쓰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단순한 브랜드 소비자가 아닌, 뷰티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스마트한 한국형 소비자가 화장품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타입의 제품을 탄생시키고, 나아가 한국 뷰티 문화 상징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코리아 뷰티, 테스트 마켓을 넘어서

한국 뷰티 마켓이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가장 빠른' 때문이다. 최근 열풍을 일으킨 BB크림이나 CC크림이 그 단적인 예다. 한국의 BB크림 열풍으로 BB크림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가 하면, 한국 소비자들의 요구로 탄생한 CC크림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한 것. 이처럼 새로운 시장을 빠르게 형성하기도, 확대시키기도 하는 한국 마켓은 신제품 테스트 마켓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한 셈이다. 최근 한국에서 성공하면 어떤 마켓에서도 성공한다는 속설은 이제 더 이상 속설이 아닌 뷰티업계의 정설이 되었다. 한국에서 불을 일으킨 제품이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기반 믿음이 지배적이

다. 그 때문에 해외 브랜드에서도 아시아를 넘어 한국을 타겟으로 한, 한국인에게 특화된 제품을 기획할 뿐 아니라 대표 제품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최근 글로벌 뷰티 이벤트에 참여한 에디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카라, 소녀시대, 헤어 & 메이크업뷰티 한국 여성들이 선호하는 생얼 메이크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외 뷰티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질문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과거와 달리 이제 뷰티 마켓에서 한국의 관심이 대상이자 트렌드를 생성하는 하나의 테스트 마켓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유럽, 미국 브랜드의 CEO가 직접 내한해 한국 뷰티 시장을 둘러보고 새롭게 출시된 제품을 테스트해보는가 하면, 세계 정상급 뷰티 전문가들이 모이는 세계 피부과 학술대회(WCD)에서 설화수, 아모레퍼미픽 등 한국 브랜드의 학술과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 것도 한국 뷰티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다. 세계 각국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코리아 뷰티. 테스트 마켓을 넘어 뷰티 선진국에 들어설 날이 머지않았다고 기대해본다. **에디터 권유진**

HUI WHITE EXTREME
cellshine magic crystal cream

AMOREPACIFIC
TIME RESPONSE
Skin Renewal Creme

Ja Saeng Essence
秘貼

POWER PERFECTION BB CREAM
SPF37/PA++
NATURAL BEIGE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윤조에센스

Excellence of beauty

(왼쪽부터 차례대로) 설화수 윤조 에센스 60ml 8만5천원대, 헤라 UV 미스트 쿠션 SPF 50+ PA+++ 15gX2개 4만5천원, 데마시삼 페이스 및 파워퍼펙션 BB크림 40ml 2만2천9백원,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비협 자생 에센스 45ml 16만원, 아모레퍼미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 50ml 48만원, 오희 화이트 인스트림 셀사인 마스크 크리스털 크림 70ml 10만원.

합리적인 가격, 뛰어난 품질, 특화된 제품군, 뷰티 전문 프로그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마케팅으로 그 영역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고 있는 한국 뷰티 시장. 해외 글로벌 브랜드도 긴장하게 하는 한류 뷰티 이야기.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꿈꾸던 휴가, 그 이상의 행복 **Club Med**
프리미엄 올-인클루시브 리조트

여름휴가 미리 예약하고, 가볍게 떠나자! 클럽메드

조기예약 BIG BONUS 성인 129만원대 부터

발리, 푸켓, 빈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체러팅 비치, 오키나와 카비라 비치, 몰디브 카니

본 프로모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클럽메드 예약과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02-3452-0123
www.clubmed.co.kr



Rite of Spring

봄은 이렇게 소리 없이, 신선한 실루엣과 나폴거리는 시폰, 선명한 컬러로 찾아온다. 빅 하우스들이 선택한 2013 S/S 컬렉션. *photographed by bole*

하늘색 슬리브리스톱,
화이트 스커트 모두 **클로에**,
진주 네크리스 **샤넬**,
브라운 웨지 슈즈 **지미추**.



화이트 러플 베스트,
도트 패턴의 스팽글 맥시 스커트
모두 **조르지오 아르마니**,
오른손 검지와 중지엔 **진 크리스탈**
링과 브레이슬릿 모두 **미네타니**.



진주 디테일의 블랙 재킷,
블랙 가죽 스커트,
진주 브레이슬릿 모두 샤넬.



레드 블라우스와 레드 스트라이프
와이드 팬츠 모두 셀린,
실버 & 골드 슈즈 지미후,
크리스탈 드롭 이어링과 크리스탈 링
모두 스와로브스키.



블랙 플라워 패턴의 라임 컬러
원피스 **대레쿠니**, 컬러풀한
크리스탈 네크리스와 블루
스퀘어 크리스탈 링
모두 **스와로브스키**.



베이지와 오렌지 배색
블라우스, 브라운 가죽
팬츠, 컬러 블록 스타드
슈즈 모두 **렌디**.

라임 컬러의 트위드 재킷과
쇼츠 모두 **랑방**. 플라워 모티브
장식의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
모두 **프라다**. 크리스탈 이어링과
원손에 착용한 링 모두 **미네타니**.
오른손에 착용한 크리스탈 링
스외로브스키. 브라운 스트랩
웨이슈즈 **지미추**.



플라워 프린트 블랙
모피 소재 롱, 민트 컬러
새틴 스커트, 플라워
모티브 장식 이어링과
브레이슬릿 모두 **프라다**.



헤어 박선호
메이크업 오미영
모델 이해정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아시스턴트 김해인

조르지오 아르마니 02-549-3355
클로에 02-6905-3670
미네타니 02-3443-4164
셀린 02-3440-1547
스외로브스키 02-3444-2144
샤넬 02-546-0228
렌디 02-2056-9023
데레쿠니 070-7130-2959
지미추 02-3443-4570
프라다 02-3218-5331
랑방 02-6905-3496

* 본 화보에 나온 제품의 상세한 가격 정보는 스타일 조션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tylechosun.com

Basic elegance

점점 더 화려하고 과감해지는 패션 트렌드 속에서 단순하고 간결한 미니멀 아이템이 꾸준히 등장하는 것은 베이직 아이템이 발휘하는 강한 힘 때문이다. 포인트 아이템을 살리는 데 기본 아이템만 한 것이 없듯이 어떠한 룩에나 쉽게 매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클래식한 여성 구두에 투자할 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아래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사랑 스러운 파스텔 핑크 컬러가 돋보이는 스틸레토 힐 82만원 **지미추**, 블랙 & 화이트 배색이 모던한 스틸레토 힐 82만원 **생로랑 파리**, 관능미가 느껴지는 선명한 레드 컬러 스틸레토 힐 52만원 **랑방 컬렉션**, 부드러운 그레이 컬러가 베이직한 오픈토 힐 88만원 **주세페 자노티**, 태슬 디테일과 버클 장식이 포인트인 블랙 펌프스 94만원 **로버트 클로제리 by 주느세라**, 베이직 컬러에 브라운 컬러로 포인트를 준 메리제인 힐 1백42만원 **마블로 블라너**,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라인이 매력적인 블랙 하이힐 가격 미정 **셀린**, 에디터 권유진

지미추 02-3443-4570
 생로랑 파리 02-549-5741
 랑방 컬렉션 02-3438-6260
 주세페 자노티 02-543-1937
 주느세라 02-515-3151
 마블로 블라너 02-3443-2113
 셀린 02-3440-1547

스타일링: 유원정

Stud attack

메탈 디테일을 집착한 가방의 인기가 여전히 뜨겁다. 랑방 컬렉션의 2013 S/S 백은 과감한 스틸드 장식과 특별한 소재, 다양한 디자인으로 도회적인 여성이 추구하는 멋과 실용성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매 시즌 새로운 형태와 과감한 디테일,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사랑받는 랑방 컬렉션의 2013 S/S 가방이 공개됐다. 그 첫 번째는 스틸드 장식을 포인트로 한 '스티드 백' 컬렉션. 단단한 소재에 파이톤 무늬를 찍어낸 표면을 비롯해 묵직한 무게감과 고급스러운 디테일에서 명품 하우스에 견주어도 될 만큼 견고함이 느껴진다. 특히 가방 전면과 리본을 따라 장식한 스틸드와 볼드한 메탈 스트랩으로 자유분방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강조했다. 수납력 높은 쇼퍼백부터 이중 메탈 스트랩의 숄더백, 큼직한 클러치, 가볍게 연출할 수 있는 미니 사이즈 백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선택의 폭을 넓힌 점도 주목할 것. 스틸드 밴글과 볼드한 네크리스 등 룩의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액세서리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8-6260 에디터 이예진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실용적인 쇼퍼백 스타일 가방 40X30cm 1백55만원, 스틸드 장식 밴글 29만5천원, 카디건 사이즈의 직사각형 클러치 백 37X28cm 99만5천원, 곤충 모티브 용이 달려 있는 볼드한 네크리스 39만5천원, 가방 전면 스틸드 장식한 미니 사이즈 백 21X16.5cm 62만5천원, 묵직함이 느껴지는 베이직와 블랙 숄더백 29X20cm 1백45만원, 모두 **랑방 컬렉션**.

Perfect compaction

촉촉하고 매끈한 물광 메이크업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피부를 매트하게 표현하는 파우더 팩트 대신 수분과 윤기를 더한 고체 파운데이션이 인기가. 쫘득하고 촉촉한 제형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는 것은 물론 피부 톤 보정, 잡티 커버, 스킨케어 효과와 휴대성까지 고루 갖춘 콤팩트 파운데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고 완벽한 피부를 원하는 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만능 아이템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라이트 마스터링 화이트닝 컴팩트 파운데이션 SPF 25/PA+++ 피부를 화사하고 투명하게 연출하는 화이트닝 콤팩트 파운데이션. 얇고 가볍게 발리지만 섧바르른 덧바를수록 완벽한 커버력을 느낄 수 있다. 리코리스 추출물과 진주 추출물이 결합된 미세한 세라미 색소를 함유해 마치 제2의 피부처럼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피부 톤을 연출하고, 보습하면서 화사한 미무리없이 피부 광택은 물론 피부 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피지 컨트롤 복합체가 작용으로 땀샘이 부드러운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30g 7만5천 원. 문의 080-332-2700

맥 프렐+프라이미 BB 뷰티밤 콤팩트 SPF 30/PA++ 맨 얼굴처럼 자연스러우면서 본인의 피부가 좋은 듯 매끈하고 촉촉한 피부를 완성하는 BB 뷰티밤 콤팩트.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에서 출시된 BB콤팩트계 뛰어난 피부 보정 효과를 자랑하는 것이 특징이다. 잡티를 가려주고 피부결을 매끈하게 정돈해 화사하고 깨끗한 피부 톤을 연출해주는 동시에, 시간이 지나도 피부 톤이 탁해지지 않는 뛰어난 지속력을 겸비했다. 스킨케어에서 인중 받음 인티에이징 기능을 갖추어 스킨케어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을 것. 8g 4만8천원. 문의 02-3440-2645

에스티 로더 시어비티비트 HD 어드밴스드 브라이트닝 BB 밤 SPF 30/PA++ HD-90 테크놀로지를 접목해 피부 잡티가 새로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전제적인 피부 톤을 교정해 맑고 깨끗한 피부를 연출하는 콤팩트 BB 밤. 매우 가벼운 질감의 밤 타입으로 환경 광해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피부를 완성한다. 또 피부 속 수분 장벽을 강화해 오랜 시간 촉촉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10g 6만 원 대. 문의 02-3440-2772

이모레퍼마인 트리트먼트 컬러 컨트롤 쿠션 SPF 50+/PA+++ 정제 수 대신 각종 아미노산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대나무 수액, 녹차 성분을 함유해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로 가꿔주는 트리트먼트 쿠션 파운데이션. 브랜드 특화 기술인 플루이드 캡처 시스템을 적용해 제형이 피부에 얇고 가볍게 밀착되어 피부 본연의 광을 살려준다. 홍 리스칭™ 콤플렉스 성분이 밤과 피지 분 비 때문에 파운데이션이 들뜨거나 벗겨지지 않도록 돕고,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풍부한 수분감과 피부 광택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0g(리필 포함) 6만5천원. 문의 080-023-5454

바비 브라운 롱웨어 이븐 피니시 콤팩트 파운데이션 바비 브라운의 베이스 트셀라인 롱웨어 파운데이션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콤팩트 형태로 재탄생 제품. 피부 톤과 피부결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파운데이션이 뭉치거나 뜨지 않고 매끄럽고 고른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12시간 동안 지속되는 오일 프리 포뮬러가 번들거림 없이 편안한 피부 상태를 유지시키고, 두 가지 미세 파우더를 함유해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를 완성한다. 9ml 6만 원대. 문의 02-3440-2781

디올 사틴 브라이트닝 UV 콤팩트 프로텍션 블레시쉬 밤 SPF 30 PA+++ 자외선 차단·인티에이징·브라이트닝·보습 효과까지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블레시쉬 밤. 피부 톤 교정 색소가 함유된 미세한 틸트 성분이 얼룩덜룩한 피부를 고르게 정돈하고 자연스러운 빛을 더해준다. 풍부한 보습력과 더불어 촉촉하고 부드러운 질감으로 건조한 피부에도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다. 11g 12만 원. 문의 02-3438-9631

SK-II 셀뮬미네이션 에센스 인 파운데이션 피부 자체에 관리를 부여하는 에센스 성분을 듬뿍 함유한 광채 콤팩트 파운데이션. 화이트닝 에센스 성분인 오라 브라이트 리제인팅이 들어 있는 베이퍼세 사용자제형과 빛을 살려주는 성분인 3-컬러 크리스탈 파우더가 함유된 크림세 사용자제가 메인 피부 톤 밸런스를 맞춰주어 피부 자체의 광채를 살려준다. 비타민 C 유도체와 비타민 E 등이 함유된 애플 비타민 겔들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스스로 타차 낮 동안에도 지속적인 스킨케어가 가능하다. 10.5g 9만 원대. 문의 080-023-3333 에디터 권유진



Legendary fragrance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우아하고 부드러운 향. 한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진정한 여성의 향기... 이는 전설의 향수 샤넬 N°5가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이유다. N°5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샤넬 N°5 오 프르미에르가 올 4월, 스프레이 보틀이 포함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된다. 따뜻한 봄날, 풍부한 플로럴 부케로 진정한 여인의 향기를 전해줄 샤넬 N°5 오 프르미에르 스토리.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진정한 여성의 향기, 샤넬 N°5

"나는 그 누구도 만든 적이 없는, 매우 독특한 향수를 만들고 싶었다. 진짜 여인의 향이 나는 여자 향수." 마드무아젤 샤넬이 탄생시킨 영원한 여성성의 상징이자 진정한 여성의 향기를 담은 전설의 향수, 샤넬 N°5. 우아하고 클래식한 향으로 전 세계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은 N°5는 단순히 베스트셀러 향수가 아니라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정성을 기울인 한 여성이 창조한 후각의 예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패션 디자이너인 가브리엘 샤넬의 대담성과 조형사인 에르네스트 보의 향에 대한 자유로운 감각이 만나 맺은 결실이다. 5월의 장미와 그라스 재스민, 향성 향료인 알데하이드의 가벼운 꽃향기가 전하는 신선함, 그리고 관능적인 매력으로 다가오는 코로모 일랑알랑과 네롤리의 향까지 더해 지극히 여성스러우면서 클래식한 향을 선사한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해 매혹적이고 고급스러운 향을 발산하는 샤넬 N°5는 진정한 여인의 향기 가운데는 독보적인 여성향수다.

N°5 오 프르미에르 리미티드 에디션

올 4월, 샤넬에서는 N°5 오 프르미에르 펠스 스프레이(7.5mlX3개, 리필 포함)와 N°5 오 프르미에르 40ml 스프레이 보틀로 구성된 'N°5 오 프르미에르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한다. N°5 오 프르미에르는 전설적인 N°5를 현대적인 예술성으로 재해석한 향수, 샤넬의 향수 크리에이터 지크 폴주가 재탄생시킨 N°5 오 프르미에르는 추상적인 부케를 통해 새롭게 피어나는 꽃봉오리에 맺힌 가냘픈 우아한 부드러움과 신선함이 공존하는 향이 특징이다. N°5가 스캐치라면 오 프르미에르는 수채화에 비유할 수 있을 만큼 파스텔 톤과 물의 투명성이 연상되는 여성스러운 향수다. 피부에 닿는 즉시 재스민의 투명함과 장미의 화려함이 어우러져 부드러운 플로럴 향기가 살아나고, 여기에 온화한 바닐라 향, 강렬하고 감각적인 베티베르 향이 어우러져 시간이 지날수록 부드럽고 우아한 여인이 특징인 진함을 느낄 수 있다.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에 포함된 40ml 스프레이 보틀은 휴대하기 간편해 언제 어디서나 N°5의 향을 즐길 수 있어 매력적. 따뜻한 봄날 사랑하는 사람, 혹은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내 자신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도 제격이다. 17만 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color Me!

따뜻하고 부드러운 컬러들이 눈가에 내려앉으면 피부까지 화사해 보인다.
상큼하고 달콤한 컬러를 담은 신제품 아이 팔레트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디올 스킨우 5 컬러의 프로스트 블롬 컬러 컬렉션 세트는 세 개의 스테디 컬러 디올 5 컬러 프로 컬렉션의 2013년 버전. 컬러풀하지만 투명하게 발리는 텍스처가 자연스럽다. 6g 7만9천원, 문의 02-3438-9631

컬러 샤프라 블러쉬 핑크 스트라이프 블러셔로 피부색을 미묘하게 연출할 수 있다. 누드 톤부터 화사한 핑크까지 사뭇한 파란 빛깔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 하모니가 아름답다. 8g 7만9천원, 문의 02-3438-9628

시세이도 루미나이징 사틴 아이셰이드 트리오 피그먼트가 섬세해 지속력이 뛰어나다. 뜨거운 태양빛을 받은 핑크빛 모래사막을 표현한 몽환적인 세 가지 컬러를 담았다. 3g 4만8천원, 문의 080-564-7700

인생도랑 와이 파셋 팔레트 아이셰이드 환상적인 컬러를 선보이는 인생도랑의 2013 스프링 특 팔레트. 찬연사에서 영감을 얻은 크리스탈 컬러 팔레트로 텍스처가 피부다르다. 3g 7만6천원, 문의 080-347-0089

샤넬 옴브르 블로리 엘리카티스 4색 세트 2013년 레 델리스 드 샤넬 컬렉션 아이셰이드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아이셰이드에 작은 카멜리아 패턴이 새겨져 사랑스럽다. 2g 8만1천원, 문의 080-332-2700

에스티 로더 뷰어 컬러 피이브 컬러 아이셰이드 팔레트 프리티 넷티 경쾌한 느낌의 아쿠아 피스텔 컬러를 담은 실용적인 팔레트. 가운데 달콤한 핑크는 차를 컬러로 아이 메이크업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연출할 수 있다. 7.6g 6만2천원, 문의 02-3440-2772

랑콤 옴브르 입술퀴 인메트 3D 플 아이 부드러운 크리미한 텍스처의 다섯 가지 색상을 갖춘 아이셰이드. 하이라이트 색상부터 아이리니-까지 순서대로 바르기만 하면 선명한 눈매를 완성할 수 있다. 사진 속 제품은 A80 핑 컬러다. 4.2g 7만원, 문의 080-022-3332 에디터 배미진

Get perfect skin

원하는 피부 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브랜드의 파우더가 궁금하지 않은가. 피부 본연의 힘이 느껴지는, 완벽하게 자연스러운 피부를 완성해주는 파운데이션 팩트, 바비 브라운 '롱웨어 이븐 피니시 컴팩트 파운데이션'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메이크업이 아닌, 완벽한 피부의 재탄생

최근 10년간 화장품업계를 뒤흔든 키워드를 꼽으라면 무엇보다 물기가 어린 듯, 어쩌면 번들거려 보일 정도로 촉촉한 '물광 파운데이션'이다. 립스틱이 아닌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라는 품목으로 웨이팅 리스트를 만들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한 '물광 파운데이션'을 처음 선보인 브랜드가 바로 바비 브라운이다. 바비 브라운의 '물광 피부' 트렌드가 대단한 이유는 피부의 텍스처에 대한 새로운 시각,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물광' 이전까지는 피부를 하얗고 밝게 표현하는 것이 전부였던 한국 여성들이 지금은 밝히는 피부, 보송보송한 피부, 매끄러운 피부라는 다양한 '피부 표현'의 종류를 선택해 연출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바비 브라운의 '물광 피부'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변화다. 바비 브라운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롱웨어 이븐 피니시 컴팩트 파운데이션'은 길고 긴 물광의 유행 끝에, 오로지 자신의 피부처럼 깨끗하고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가능케 해주는 파운데이션 팩트다. 본래 좋은 피부처럼 보이면서 지속력이 뛰어난 파운데이션인 것. 브랜드 창시자인 바비 브라운은 여전히 할리우드에서도 손꼽히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위해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바비 브라운의 제품이 실용적인 트렌드를 제시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녀의 메이크업이 광고나 백스테이지 같은 생생한 현장에서 완성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경험을 담은 것이 바로 '롱웨어 이븐 피니시 컴팩트 파운데이션'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라는 브랜드의 슬로건처럼 이 제품은 바르는 순간 피부에서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피부에 밀착된다.

1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 표현

'롱웨어 컴팩트 파운데이션'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듯 한 이 팩트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피부 표현을 완성해준다는 것이다. 자칫 게 번들거리는 물광이나 허얗게 들떠 보이는 과장된 피부 표현 대신 두 가지 미세 파우더가 균형을 이루어 과도한 피지를 흡수하고, 피부결이 자연스럽게 워 보이도록 소프트 포커스 효과를 낸다. 바비 브라운은 메이크업에 관해 수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만큼 팩트에 내장된 화이트 스펀지 역시 사용감이 매우 뛰어나 피부를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만일 보다 보송보송하고 섬세한 피부 표현을 원한다면 바비 브라운의 브러시로 파운데이션을 사용해도 좋다.

2 12시간 유지되는 뛰어난 지속력

파운데이션 팩트의 텍스처가 쉽게 날라기 화장이 금방 지워진다는 단점을 보완해 12시간 이상의 지속력을 자랑한다. 바비 브라운의 스테디셀러인 롱웨어 젤 아이리니에 사용하는 필름 형성막 기술을 적용해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될 뿐 아니라, 오일 프리 제품으로 지속력은 뛰어난 피부를 담당하게 하지 않도록 고안했다.

3 비타민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까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물론 비타민 C·E를 담아 외부 손상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 스킨케어 효과까지 갖춘 메이크업 팩트인 것. 여덟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바비 브라운의 섬세함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9ml 6만2천원, 문의 02-3440-2781 에디터 배미진



Italian charm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언어를 품고 있는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노바모빌리(Novamobili). 하지만 어렵거나 까칠하지 않고 다가가기에 편안한, 탁월한 균형미를 지닌 이 유혹적인 브랜드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입성했다. 아름다운 제품들의 이면에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혁신의 땀방울이 자리하고 있음을 내세우는 브랜드이다. 간혹 낯설게 다가오는 자연의 심술이 불거져도 봄의 정령이 아른아른 춤추며 다가오는 듯한 느낌은 어쩔 수 없는 이 소생의 계절, 창의적인 감성을 한껏 북돋워줄 수 있는 가구의 미학에 빠져보면 어떨까.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절제의 미학'이 완연히 느껴지지만 결코 지루하지는 않고, 세련되면서도 상큼한 감각까지 담은 디자인을 접하는 건 봄이라는 계절 특유의 설렘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다. 이러한 봄의 매혹을 공간에 옮겨 담고 싶을 만큼 '유혹적인' 가구 품목을 풍부하게 거느린 노바모빌리(Novamobili)는 이탈리아 디자인의 저력에 찬탄을 표하게 되는, 주목할 만한 브랜드이다. 단속하면서도 심심하지 않은, 절묘한 균형이 돋보이는 디자인 언어도 감탄을 불러 일으키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혁신의 DNA는 현대 가구 진화의 궤적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탈리아 특유의 세련된 감성, 실용의 미학까지 두루두루 갖춘 노바모빌리를 최근 국내에서 럭셔리빙이 선보였다. 럭셔리빙은 2011년 '아메리칸 모던 클래식'을 표방하는 인기 디자인 가구 MGBW의 플래그십 매장을 아시아 최초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열었던 리빙 브랜드이다.

세상에 출현한 지 60년이 된 이 디자인 가구 브랜드는 이탈리아 전통의 강점을 잃지 않으면서도 '첨단' 요소를 실용적으로 접목해 성공한 좋은 사례이다.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디자인의 디테일은 물론 품질과 내구성 등 기능성을 살리는 과학적인 공정을 도입한 동시에 친환경 정책을 창의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예컨대, 실내 공기를 악화시키는 유해 물질의 발산을 막기 위해 가장 엄격하다는 국제 인증의 하나인 '그린가드 인드어 에어퀼리티'를 받은 재료를 엄선해 가구를 제작한다. 또 가구를 마감할 때 사용하는 래커도 유럽연합(EU)의 친환경 마크 '에코 라벨'을 받은 자체 개발 무광 수성 래커를 쓴다. 이처럼 출중한 기술력이 뒷받침되기에 인하우스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에 의해 탄생되는 'Made

in Italy'인데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이 회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같이 창의적인 가운데 넘치는 노바모빌리의 경쟁력은 혁신에 대한 창업자의 열의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브랜드 창시자인 알프레도 바티스텔라는 젊은 시절 목공 기술의 대가인 장인에게서 노하우를 전수한 뒤, 1952년 가구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신기술과 참신한 트렌드를 주도하는 제품군을 앞세워 노바모빌리라는 브랜드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이제 창업자의 아들인 마리오 바티스텔라 최고경영자(CEO)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꾸준한 혁신에 힘입어 노바모빌리는 수년간 매출 성장세를 지속해왔다. 신기술 연구 개발(R&D)에 애정을 담뿍 쏟는 CEO의 지휘 아래, 장인 정신과 혁신적인 진화의 조화가 빛을 발한다는 평가를 받는 노바모빌리는 6개월마다 새 컬렉션을 선보이는데, 지난 시즌 제품과 신상품이 조화롭게 연출될 수 있도록 '이유 있는' 색상군을 선정한다. 특유의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구 시즌의 색상 조화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럭셔리빙에서는 노바모빌리의 국내 론칭을 기념하기 위해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프로모션 행사(MGBW도 포함)를 진행 중이다. 신뜻한 봄에 어울리는 아리따운 맵시의 거주 공간에 대한 설렘이 피어나고 있다면, 떠오르는 이탈리아의 디자인 감성 '노바모빌리를 눈여겨볼 만하다. 에디터 **고성연**

EVENT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매력적인 이탈리아 가구 브랜드 노바모빌리(Novamobili)의 국내 론칭을 기념하기 위해 럭셔리빙에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참신한 디자인 감성이 담긴 다채로운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가깝게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문의 02-542-8242 www.luxeliving.kr



1 진동대를 연상케 하는 '디보 소파(Divo Sofa)', 노바모빌리 소파들은 인체의 실루엣을 카운팅 쿠션으로 받쳐주는 동시에 등받이 조절도 가능하게 설계한다. 가죽, 매브릭 등 커버 소재는 물론 대리도 나무, 매달 등 재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커버를 벗길 수도 있어 실용적이다. 2 '빅(Big)' 테이블. 절제의 미학이 돋보이면서도 단조롭지는 않은 디자인의 조화가 나타난다. 3 긴결하고 세련된 다용도 수납장 '섀도(Shadows)', 4 바스 돌이 기울어진 나무 다리기 매력적인 '피그레코(Pigreco)' 테이블.

홍박, 대하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넣은 타갈리오텔 파스타. by 알레시아 세라피니



징글리와 잣가루, 일본 전통 납킨은 개인 소장품. 짐마색 세라피 캄시는 크리스티안 페로쵸(Christiane Perrochon) 제품. by 아키 & 아르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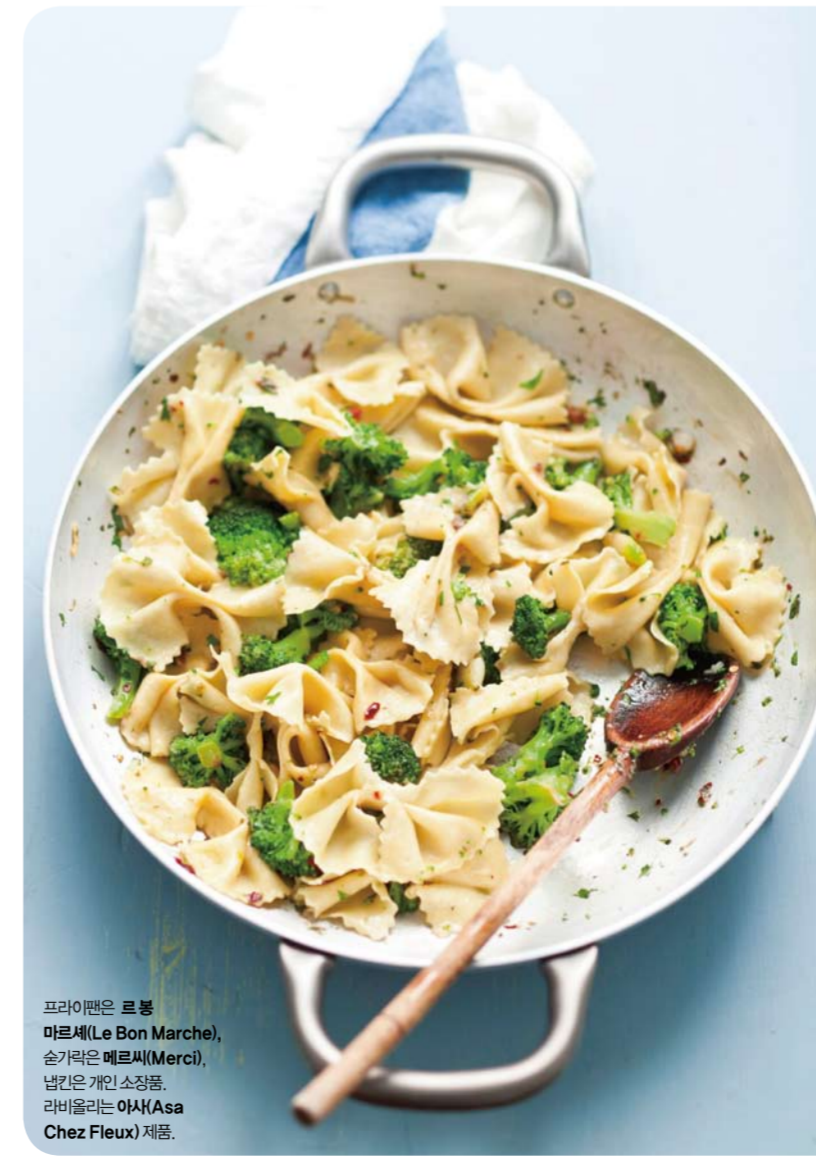


카넬로니 파스타가 들어 있는 집사는 아비타(Habitat), 라벤 소재 납킨은 콘란쇼(The Conran Shop) 제품. by 안드레아 & 레티시아



viva, Pasta

이탈리아, 일본, 알제리, 인도, 아르헨티나 그리고 코르시카. 여러 곳에서 온 여섯 명의 재능 있는 젊은 여성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요리인 파스타에 자신들만의 소스를 더한다. 레시피 · 사진 **발레리 벨로 VALÉRIE L'HOMME** 진행 **아만드 샤라 AMANDINE SCHIRA** 스타일리스트 **마누엘라 상트피, 베렌제르 이브라함 MANUELA CHANTEPIE ET BÉRENGÈRE ABRAHAM**



L'italienne
알레시아 세라피니(Alessia Serafini), 그녀에게는 3개의 사랑이 있다. 디자인, 요리 그리고 파스타. 그녀는 동업자인 발레리 살레르노와 르 티루아(Le Tirot)라는 아틀리에를 열기 전인 지난 7월까지 앙드레 푸트만사에서 3년간 디자이너로 일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의 맛에 개인적인 터치를 더해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했다.
"디자인은 세계 마치 요리 레시피와도 같아요. 재료의 혼합, 심플함의 응용, 창조성과 면밀함 등에서 볼 때 말이죠."

브로콜리와 멸치를 넣은 파르팔레 파스타
4인분 기준 재료 파스타 반죽(알기루 200g, 달걀 2개, 소금 1/2작은술, 올리브 오일 1큰술), 브로콜리 600g, 오일에 잘린 멸치 80리, 마늘 8쪽, 올리브 오일 4큰술, 달걀 고추 1/2작은술, 소금 · 다진 파슬리 · 후춧가루 약간씩 조리 시간 20분, 파스타 익히는 시간 2~3분, 소스 익히는 시간 5분

만들기
① 1mm 두께로 민 파스타 반죽을 정사각형으로 썬다. 그리고 정사각형의 중심을 집어 붙여 노리 모양을 만든다. ② 마늘은 감자를 벗긴 후 다지고, 씻어 물기를 제거한 파슬리도 다진다. ③ 소금을 넣고 끓인 물에 작게 썬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건져낸 다음 그 물에 파스타를 넣어 삶는다. ④ 파스타가 익는 동안 올리브 오일을 두른 프라이팬에 마늘을 넣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는다. 그런 다음 고추와 브로콜리, 멸치를 넣는다. 파스타가 익으면 간재와 물을 추가한다. ⑤ ④의 프라이팬에 파스타를 넣어 조식스럽게 짓고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한다. 멸치에 팬티이 배어 있으므로 소금은 약간만 넣는다. ⑥ 완성된 파스타를 집사에 담고 파슬리를 뿌린다.



프라이팬은 르봉 마르세(Le Bon Marche), 손가락은 메르시(Merci), 납킨은 개인 소장품. 라비올리는 아사(Chez Fleux) 제품.



La Japonaise

아카와 아르노는 로레알사의 공간 디자인, 사물의 무대미술, 갤러리 아메르 & 말타의 디자이너들이다. 그들은 지난 말라노 디자인 페어를 거쳐 9월과 10월에 프랑스에 출시된 에디터 아카와와를 위한 레드 테스크 라이트시의 마지막 랩프 디자인을 마쳤다. 일상생활처럼 일에서도 그들은 일본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작업하고 있다. 집에서 아카와는 나무 우동이나 아카와사 등 일본 전통 요리를 손수 만들고 한다.

A+A Cooren
36, rue Etienne Dolet, 75020 Paris
Tel: +33 1 4349 5024
www.aplusacooren.com



대리석 소재의 스톤은 보이드(Void, 이베르& 말타 갤러리에서 제작), 유약을 입힌 전통 질그릇은 개인 소장품, 잣나무는 무지(Muji) 제품.

아카와사

4인분 기준 재료 소바 면 350g, 알게 슬라이스된 돼지 가슴살 200g, 초록색 피프리카 2개, 당근 1개, 파 2뿌리, 2cm 크기의 생강, 고추 1/2쪽, 간장 2큰술, 해바라기씨유 1큰술, 참기름 2큰술, 소금 약간 조리 시간 15분, 소바 익히는 시간은 면 포장지에 나온 설명을 참조, 다른 재료 조리 시간 5분

만들기
① 돼지 가슴살을 2cm 크기로 자른다. 피프리카를 씻은 후 씨를 제거하고 알게 기로 썰기를 한다. 파를 씻은 후 반을 길게 갈라 얇게 썬다. 당근과 생강도 씻은 후 알게 길게 썬다. 고추는 씻은 후 알을 따서 알맞은 크기로 자른다. ② 프라이팬에 해바라기씨유를 두르고 돼지 가슴살과 간장을 넣어 2분간 볶다가 파와 생강, 당근, 피프리카를 넣고 함께 볶는다. ③ 냄비에 물과 소금을 넣고 끓여 끓으면 소바 면을 삶는다. 면이 익으면 물기를 뺀 후 2의 프라이팬에 면을 넣고 함께 섞어 뒤 버려준다. ④ 완성된 국수를 그릇에 담고 참기름, 고추 알을 뿌린다.



L'Algerienne

사피아 우아레스(Safia Ouareis)는 플라스 병동에 있는 귀금속 브랜드의 에-메이선아트 디렉터이며 에르메스의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다. 그녀는 지중해 요리의 맛과 색, 그리고 향기를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 오늘 그녀는 아란젯을 결집인 먹물 링귀니 파스타를 선택했다.

Tel. +33 1 42 47 15 80
www.safiaouares.com
safiaouares.blogspot.com



태아 블로와 유리 접시는 리완(Liwan), 태아 블로와 일러스트레이션은 사피아가 직접 디자인했다.

아란젯을 결집인 링귀니 먹물 파스타

4인분 기준 재료 링귀니 파스타 500g, 아란젯 100g, 유자 레몬 1개, 마늘 1쪽, 오징어 먹물 24g, 바질 잎 12장, 올리브 오일 3큰술, 소금 약간 조리 시간 15분, 링귀니 익히는 시간은 면 포장지 참조

만들기
① 아란젯을 레몬 위에 살짝 올려 놓는다. 마늘은 씻어서 다지고 바질 잎은 후 알을 따서 손질한다. ② 올리브 오일 두 큰 팬을 약한 불에서 천천히 달군다.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면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마늘이 투명해지면 오징어 먹물을 섞은 후 볶고 놓아준다. ③ 큰 냄비에 물을 넣고 소금으로 간한 뒤 링귀니 파스타를 익힌다. 파스타를 건져내어 물기를 뺀 후 2의 오징어 먹물과 파스타 삶은 물을 반 국자 정도 섞는다. 아란젯 레몬 껍질을 약간 넣고 잘게 자른 바질 잎을 반인 팬에 함께 넣고 약한 불에서 2분간 살짝 볶는다. ④ 완성된 파스타를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익힌 레몬 껍질과 아란젯, 나머지 바질 잎을 얹는다.



마카로니가 담긴 볼과 망치로 두들겨 만든 메달 소재의 장판은 리완(Liwan), 도자기와 메탈로 이루어진 접시는 메르시(Merci) 제품, 메달 소재의 숟가락, 실크 실로 수놓은 아생 실크 태아 블로와 인도 수공 방식인 아라리(Arari)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L'Indienne

시카 시르(Shikha Chireux)는 인도의 전통 자수를 응용하는 작가이자 파리의 쿠튀르 브랜드를 위해서도 일한다. 그녀의 작업실이자 숭배하는 여러 자수 전문가와 아마추어 수공예자들에게 금색과 은색실을 이용하는 인도의 자르도시(Zardosi) 테크닉을 가르친다. 그녀가 소개한 요리는 인도 양념인 가람 마살라로 아름다운 색을 낸 마카로니 요리다.

Atelier Zardosi
13 bis, rue Henri Monnier, 75009 Paris
Tel. +33 1 71 60 31 49
www.zardosi.fr

가람 마살라식 마카로니

4인분 기준 재료 마카로니 400g, 잘 익은 토마토 5개, 양파 3개, 마늘 3쪽, 생강 14g, 커민씨 1작은술, 강황가루 1½작은술, 고춧가루 약간, 라임 1/2개, 고추 알 3쪽, 올리브 오일 3큰술, 타마린 소스 1큰술, 타마린 2큰술, 소금 후춧가루 가람 마살라 약간씩 조리 시간 10분, 마카로니 익히는 시간은 면 포장지 참조, 소스 익히는 시간 20분

만들기
① 토마토를 씻어서 밑에 골게 건다. 양파는 껍질을 벗겨 다진다. 생강은 껍질을 벗겨 벗겨 건다. 마늘은 껍질을 벗겨 골게 다진다. ②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강황 가루와 커민 씨를 넣고 익히고, 생강과 마늘을 넣고 2분간 볶다가 양파를 넣는다. 2분간 더 볶다가 간 토마토와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 15분간 무명을 달고 익힌다. ③ 타마린을 물과 섞는다. 2분간 두들겨 체에 걸러 생탕, 소금, 후춧가루, 가람 마살라를 섞는다. ④ 마카로니를 삶아 물은 뺀 후 2의 팬에 넣고 잘게 섞고, 타마린 소스와 함께 섞는다. 약한 불에서 살짝 졸 후 고추 섞는다. ⑤ 완성된 마카로니를 그릇에 담은 후 고추 알을 올리고 라임 즙을 뿌린다.



도자기 접시는 르 봉 마르세(Le Bon Marche), 실드 스톤은 아비타(Habitat), 태아 블로와 카라반 오피니움(Caravane Emporium) 제품.



L'Argentine et La Corse

안드레아 웨이너(Andrea Wainer)와 레티시아 베르테랑(Laetitia Bertrand)은 창조적인 요리의 새로운 전망으로 발돋움하는 라 코코트(La Cocotte)를 개편했다. 코코트는 양파, 타월, 팬, 향신료 등 세련된 주방용품들을 다루는 곳으로 손 접해는 요리 책자가 한 가득 전시되어 있어 그들의 요리만큼이나 독특하고 기발하다. 그들의 상품은 파리 디자인 워크에 소개되었는데, 사를로트 보르카의 초콜릿 워크숍도 함께 진행되었다.

La Cocotte
5, rue Paul Bert, 75011 Paris
Tel. +33 9 54 73 17 77
www.lacocotte.net

고추, 그리고 석실에 구운 고기를 결집인 루미슈 샐러드

4인분 기준 재료 루미슈 파스타 300g, 쇠고기 등심 400g, 빨간 고추 4개, 보라색 무화과 4개, 로케트(무화과 식물) 150g, 마늘 1쪽, 올리브 오일 200ml, 소금 후춧가루 약간씩 조리 시간 15분, 루미슈 익히는 시간은 면 포장지 참조, 고기 익히는 시간 4분

만들기
① 로케트 페스토를 준비한다. 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씻은 도래낸 후 다진다. 로케트는 씻은 후 물기를 빼서 50g은 닦고 나머지는 다진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은 최대한 골게 믹서에 건다. 여기에 익힌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린 후 냉장 보관한다. ② 빨간 고추는 씻은 후 알을 골게 다진다. 고추가 노릇노릇하게 그을리기 시작하면 오븐에서 개개 샐러드 그릇에 담아서 골게 2등분하고 고추 씨를 빼낸다. 고추에서 나온 즙은 로케트 페스토에 넣는다. 무화과는 씻어서 4등분한다. ③ 그릇에 등심 양사이드를 각각 2분간 굽는다. 고기 소금과 후춧가루를 뿌리고 샐러드 접기에 10분간 식힌다. ④ 파스타를 익힌 후 찬물에 담가 식힌다. 물기를 제거하고 준비한 로케트 페스토와 섞는다. ⑤ 접시에 파스타를 담고 고추와 무화과, 고기, 샐러드를 얹는다.





Beyond History

두오모 성이나 우피치 미술관 못지않은 피렌체의 상, 산타 마리아노 라가그비 스투온 세의문을 찍 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 산타 마리아노벨라

작년 11월, 피렌체의 역사와 함께해온 '산타 마리아노벨라'는 브랜드 탄생 4백 주년을 기념해 알바 디 서울이란 향수를 출시했다. 소나무 사진가로 유명한 배병우 작가의 사진을 패키지에 사용한 이 제품은 은은한 솔 향기 나는 서울의 새벽을 담았다. 정작 우리 자신조차 생각지 못한 대한민국의 품이 있는 향은 전 세계 산타 마리아노벨라 매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으며 판매되고 있다. 모두 전통에서 오는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타 마리아노벨라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냉정과 열정이 교차하는 도시, 피렌체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곳인 동시에 누구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곳이 바로 산타 마리아노벨라 약국이다. '산타 마리아노벨라(Santa Maria Novella)'라는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 이름이기도 하지만 외지에서 피렌체에 도착한 열차가 정차하는 역 이름이기도 하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의 예술 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피렌체를 대표하는 성당의 이름이기도 하다.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당시 지식층이었던 수도사들이 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따라서 산타 마리아노벨라 약국은 이 성당과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약국의 명성이 알프스를 넘어 전 유럽 대륙에 이르게 된 것은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자 루브르 궁이라든가 튀일리 정원 등을 개건한 왕비 카트린 드 메디시스(카트린 데 메디치) 덕분이다. 그녀는 잘 알려진 것처럼 피렌체의 명문가, 메디치가 출신으로 후에 앙리 2세가 되는 오를레앙 공과 결혼해 프랑스로 시집왔다. 르네상스의 발상지이자 당시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던 피렌체에서 프랑스로 시집오면서 그녀는 피렌체의 화려한 선진 문화를 프랑스로 소개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르셋과 드레스로, 당시의 프랑스의 복식사를 완전히 바꾸어놓았으며 포크와 나이프 등의 식기와 향신료를 쓰는 요리법은 프랑스를 구르메 국가로 만드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 그녀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애용했던 향수, 아쿠아 디 콜로니아 산타 마리아노벨라라는 그 세련된 향 덕분에

이후 프랑스 궁정을 시작으로 대유행했다. 그러면서 오드 콜로뉴(Eau de Cologne)란 말이 탄생했으며 이는 오늘날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향장 국가로 우뚝 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역사적인 향수를 만들어낸 곳이 바로 피렌체의 아름다운 산타 마리아노벨라 광장의 산타 마리아노벨라 약국이다. 당시 도미니카 수도회 수도사들은 성경 연구와 신부 각자에게 주어진 전문 분야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신에게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직접 재배한 약초를 가지고 오랜 연구와 실험을 거쳐 치료용 연고와 아로마 오일, 향수 등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바로 산타 마리아노벨라 역사의 시작이었다. 이후 그 뛰어난 효능 덕분에 왕실 전용 약국이 된 산타 마리아노벨라는 대중의 성원에 힘입어 일반인에게 약을 판매하는 대중적인 약국으로 변신했다. 바로 산타 마리아노벨라 브랜드가 탄생한 것이다(1612년). 이후 약제 신부들이 개발한 처방전 덕분에 18세기에 이 약국의 명성은 러시아, 인도, 심지어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졌다. 당시 약제 신부였던 고초니아는 세계 각국에 판매되는 이 제품을 위해 관련된 처방전을 연구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처방전을 따를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산타 마리아노벨라의 매장에 들어서는 것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영화 <장미의 이름>의 시대를 체험하는 듯한 경이로움의 연속이다. 입구에서부터 코끝에 와 닿는 포푸리 향에 매료되는 스칼라가(Via della Scala)



1 피렌체 역사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산타 마리아노벨라 성당의 전경. 2 산타 마리아노벨라 약국의 전통에 바탕을 둔 건강 보조제나 약품을 파는 에르보스테리아 룸. 3 매장 곳곳에 전시된 중세 제약기와 서적들. 4 산타 마리아노벨라가 대한민국에 파는 오마주인 알바 디 서울(서울의 새벽) 향수. 5 매장 한편에 자리 잡은 제약 박물관. 6 매장 곳곳에 자리한 상상의 거대한 터치스크린은 제품 안료뿐만 아니라 고래이 직접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7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결혼 지참물로 가져와 전 유럽에 광풍을 일으켰던 시나처 향수. 산타 마리아노벨라 파퓰러. 8 약재와 자연 소재로 만든 음료와 초콜릿, 과자 등을 파는 매장. 9 향수 판매를 보곤, 숙성시키는 오크 통. 10-12 산타 마리아노벨라의 모든 제품은 특성에 맞추어서 첨단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작업을 거쳐 완성된다.



의 본점은 세계 각국어를 쓰는 쇼핑객들과 그들이 티프리는 플레이로 이 곳이 두오모 성당이나 우피치 미술관 못지않은 피렌체의 랜드마크임을 증명해준다. "이곳은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피렌체의 역사와 전통을 파는 곳이지." 이 특별한 여행의 안내를 맡은 커머셜 디렉터 장루카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란 것은 이 범상치 않은 매장을 둘러보면 금방 납득이 된다.

전통과 첨단 과학이 만들어내는 '예술 화장품'

어디선가 케이크를 두른 수도사가 나타날 것 같은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할 약국 기구와 디스플레이는 흡사 중세의 수도원에 있는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 원래는 에르보스테리아라고 불리는 건강 보조제를 파는 약소 전문점이 유서 깊은 산타 마리아노벨라의 매장이었다. 지금의 화장품 매장 살라 베르데는 1700년부터 이곳의 특산품인 알케르메스나 엘리지르 디 카나, 초콜릿 등을 고객에게 접대하는 공간으로 쓰이다가 세월조 립으로 개축되었다. 이 밖에도 향수와 양초, 아로마 오일 등을 파는 공간과 향수 박물관을 개방하고 있다. 수 세기를 거치면서 전혀 내려온 약제 제조 기구나 귀중한 골동품 도자기, 유리나 동, 청동 제작 도구는 산타 마리아노벨라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는 소중한 유물들이다. 특히 전통에는 역사가 있고 역사는 반드시 언어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도서관이 있다. 여느 박물관이나 성당에서도 볼 수 없는 사크레스타리아(성구실)는 중세 이래의 의학과 제약 기술 고문서를 보관한 서고이다. 또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매장 공간과 사무실을 지나면 그야말로 중세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내실에 도착하게 된다. 유서 깊은 피렌체의 수많은 건물들처럼 1960년대 일어난 대홍수로 손상된 프레스코화를 복원하는 장면을 본다면 왜 이 산타 마리아노벨라가 곧 피렌체의 역사인지 납득이 갈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산타 마리아노벨라가 누리는 영광은 역사와 전통이라

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항상 새로움과 시대정신을 제품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덕분이다. 작년 브랜드 창립 4백 주년을 맞이해 피렌체 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대대적인 축제를 열었던 산타 마리아노벨라는 이제 혁신이라는 말이 떠올리는 파격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은 바로 피렌체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난 레지날도 줄리아니가(Via Reginaldo Giuliani)에 있는 아르 누보 스타일의 생산 공장이다. 독특한 노하우가 요구되는 수제품에 가까운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특성에 맞추어 특별 설비 시스템을 적용한 공장은 철저한 상품 관리로 왜 많은 사람들이 산타 마리아노벨라에 열광하는지 그 명성을 확인시켜준다.

혁신적인 테크닉으로 파드벨로 작업하고, 기계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일일이 수작업을 거치기도 하며, 퀄리티 높은 자연 성분을 지켜가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광경은 예술 작품을 완성하는 모습과 닮아있어 정성스럽다. 이 역사적인 매장의 곳곳에는 삼성의 거대한 터치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다. 국내에 진출한 이래 끊임없이 마니아층을 만들어내고 있는 산타 마리아노벨라의 팬들은 이런 점 때문에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도 있을 듯하다. 이 터치스크린을 통해 3D 영상으로 제품의 성능을 살펴 보면서 주문까지 하는 SF 영화 같은 장면이 반가운 이유이다.

에브제니오 알펜테리 시장은 "산타 마리아노벨라의 세계적인 성공 중에서도 저는 극동 아시아에서 거둔 성공이 가장 소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화장품 시장이면서도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잘 알아주는 한국과 일본에 이어 럭셔리 최고의 격전지인 중국에서의 성공은 바로 산타 마리아노벨라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산타 마리아노벨라의 소비자 중 한국 소비자가 가장 젊은 세대죠. 브랜드와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라고 자부심 있게 말한다. 알바 디 서울이란 산타 마리아노벨라의 향수는 수차례 방한을 통해 한국과 사랑에 빠진 그가 대한민국에 보내는 오마주인 것이다. **글** 삼우원앤매션 & 뷰티 칼럼니스트, (프랑스 여자잡지의 저자)

산타 마리아노벨라 최고의 제품들

- 1 이드랄리아크렘(Crema Idralia)** 최고의 보습력을 자랑하는 산타 마리아노벨라의 베스트셀링 제품.
- 2 올리오 코스메티코(Olio Cosmetico)** 끈적임이 전혀 없는 고농축 오일. 탁월한 보습 효과로 유명한 제품.
- 3 산타 마리아노벨라 파퓰(Aqua di Colonia Santa Maria Novella)** 카트린 드 메디시스 왕비와 프랑스로 시집오며 지녔던 향수로 전 유럽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향수 역사상 기념비적인 향수.
- 4 알바 디 서울(Alba di Seoul)** 은은한 솔 향기 나는 품위 있는 향수. 브랜드 창립 4백 주년을 기념하는 제품이자 서울과 사랑에 빠진 산타 마리아노벨라가 대한민국에 보내는 오마주, 소장 가치가 높다.
- 5 사포네 벨루티나(Sapone Vellutina)** 크림형 비누. 이드랄리아크렘 빈 개에 해당하는 성분도 들어 있어 뛰어난 보습력을 자랑한다.

gentle Lady

화이트 셔츠에 딱 떨어지는 테일러드 팬츠, 여기에 브리프케이스를 매치한 여성의 카리스마는 여는 남성 못지않다. 부드러운 셰이크, 산뜻한 컬러와 여성스러운 디테일이 돋보이는 커리어 우먼을 위한 브리프케이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선정된 블루 컬러의 스테파노 클래식 백, 34X26cm, 52만 5천원 **쿠론**, 아델린 라인과 스트랩이 돋보이는 블루 컬러 하이힐 93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오리엔트 컬러가 산뜻한 슈프루 백, 41X30, 5cm, 4백90만원 **고야드**, 비제트스 패턴이 클래식한 본티지 비제트스 브리프케이스, 36X28cm, 40만원대 **MCM**, 플립 커버 디자인이 새롭고 송아지가죽 소재의 마르첼로 드 사벨 백, 30X25cm, 2백54만원 **카르띠에**, 물결가죽이 럭셔리한 스텐다오 73백, 37X27cm, 7백만원대 **보타가 베네타**, 매끈한 광택이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의 소가죽 1964백, 36X30cm, 2백38만원 **마크 제이클스**, 컬러 블록이 모던한 펠프스 1백30만원 **펜디**, 브랜드의 시크너리 패턴이 눈에 띄는 토트 겸용 체인 숄더백, 15X19cm, 1백96만원대 **토즈**, 에디터 권유진

쿠론 02-511-1864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고야드 02-3448-4778 MCM 02-2194-6700 카르띠에 1566-7277 보타가 베네타 02-515-2717 마크 제이클스 02-6905-3674 펜디 02-2056-9023 토즈 02-3438-6008



FASHION

에르메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리오프닝 에르메스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매장을 새롭게 단장했다. 정면을 붉은색 라카드 메탈 패널과 우드 스크린 벽면으로 구성된 색다른 인테리어가 돋보이며, 에르메스를 상징하는 '포브르 모자이크(Faubourg Mosaic)' 타일 바닥을 적용했다. 리뉴얼한 매장에서는 향수, 실크, 가죽 그리고 패션 액세서리 라인을 선보인다. 문의 02-3015-3251

토즈 타임리스 아이콘 토즈는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사진집 (타임리스 아이콘(Timeless Icon))의 출간을 후원했다. 밀라노에서 처음으로 소개된 사진 중 선별된 40점을 4월 3일부터 7월까지 갤러리 현대 강남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02-3448-8105

조르지오 아르마니 수미주라 프로모션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수미주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아르마니의 수석 장인이 한국을 방문해 직접 옷을 제작해주는 최고의 맞춤복 서비스로 1년에 2번 진행된다. 고객은 직접 디자인 과정에 참여해 실루엣, 라벨 형태와 주머니 위치, 싱글 또는 더블 브레스티드, 비지 주름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셔츠는 1개월, 수트는 6~8주가 소요된다. 문의 02-549-3355

랑방 컬렉션 스프링 스카프 랑방 컬렉션에서 2013 S/S 시즌을 맞아 스카프 컬렉션을 처음 출시한다. 곤충의 다채로운 이미지를 프린트로 활용했으며, 셔츠 후에도 변형이 거의 없는 실용적인 모달(modal) 소재를 사용해 실용성을 높였다. 47가지 패턴으로 선보인다. 문의 02-3416-2591

말레 알라치 재킷 말레에서 바람과 습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알라치 재킷을 제안한다. 봄철 황사와 꽃가루, 먼지 등 각종 알레르기 유발기질을 일으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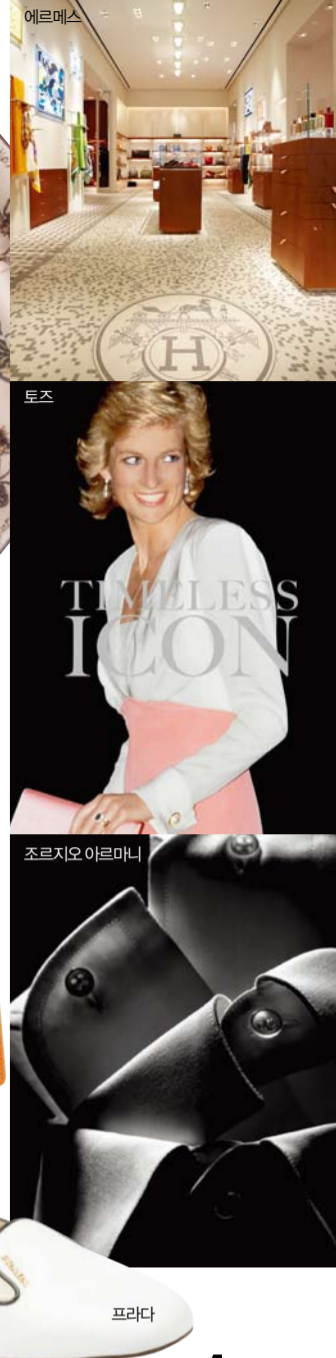
있는 요소를 차단하는 '네오 클린' 소재를 사용해 옷의 변색을 예방한다. 어깨와 팔꿈치에는 마모에 강한 원단을 덧대 내구성을 강화했다. 문의 02-6272-3023

나나리치 골드듀 웨딩 프로모션 나나리치가 웨딩 시즌을 맞아 주얼리 트렌드를 선도하는 골드듀와 함께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나나리치 매장에서 1백만원 이상 구매 시 골드듀 금액권과 '휴대용 주얼리 박스 교환권'을 증정하며, 골드듀 매장에서 2백만원 이상 구매 시 나나리치 금액권과 '커플용 여권 케이스 교환권'을 증정한다.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문의 02-2076-7661

데레쿠니 비비드 블루 쇼퍼 백 데레쿠니가 신성한 블루 컬러의 쇼퍼 백을 선보인다. 캐주얼한 옷차림에 가볍게 들 수 있는 쇼퍼 백 스타일이지만 오랫동안 이어지는 통가죽이 향미를 단단하게 잡아주고 고급스럽고 견고하다. 또 가방 속에 파우치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실용적이다. 문의 070-7130-2959

프라다 베르니체 비블로레 슈즈 프라다에서 2013 S/S 시즌을 위해 '베르니체 비블로레' 슈즈를 선보인다. 부드러운 양가죽에 광택이 나도록 투영 필름을 얇게 색은 가벼운 소재가 특징이며, 겔로 보이는 굽은 0.5cm지만 슈즈 안쪽에 1cm 웨지 힐이 들어 있어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다. 화이트, 옐로 등 화사한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2-3218-5313

펜디 크레용 컬렉션 펜디는 클래식을 바탕으로 트런드한 디자인과 컬러를 접목한 '크레용 컬렉션'을 선보인다. 다양한 종류의 지갑, 미니 백, 명함지갑, 키 홀더는 '크레용 효과'라고 명명한 대담하고 풍성한 컬러를 특징으로 한다. 문의 02-2056-9023



LIFESTY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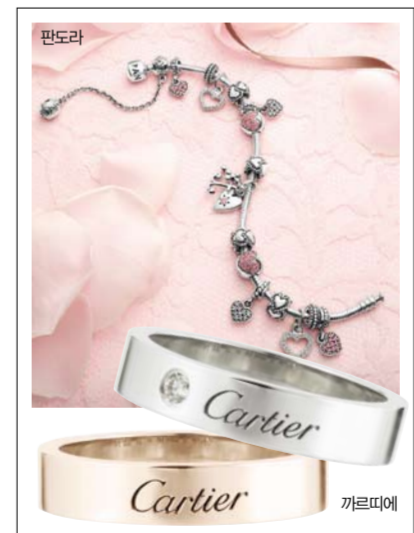
클림메드 여름휴가 조기 예약 빅 보너스 프로모션 크림메드가 '여름휴가 조기 예약 빅 보너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6월부터 10월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빈탄 아일랜드, 태국 푸켓, 말레이시아 체타링, 오카나와 카비라 비치, 몰디브 카니 지역을 크림메드에 한해 최대 40% 할인된 금액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문의 02-3452-0123

럭스리빙 노바모빌리 론칭 기념 할인 럭스리빙에서 '노바모빌리(Novamobili)' 론칭을 기념하기 위해 20~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모던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시연되는 노바모빌리는 이탈리아 특유의 세련된 감성과 실용의 미학을 겸비한 디자인 가구 브랜드다. 문의 02-542-8242

발렌타인 17 리미티드 에디션 발렌타인이 2013 발렌타인 챔피언십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발렌타인 챔피언십 골프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한다. 기존 발렌타인 17년의 부드럽고 완벽한 발렌타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린 컬러의 보트에 골프 이마지와 발렌타인 B 로고를 더한 새로운 패키지로 소장 가치를 더했다. 문의 02-3466-5700



SHOWROOM



판도라 가족 테마 컬렉션 덴마크 주얼리 브랜드 판도라에서 가족을 테마로 한 봄 컬렉션을 출시한다. 엄마와 딸을 상징하는 레드 탱클과 아이들을 상징하는 블루 에-벨 탱클, 그리고 '살피 페밀리' 참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참을 겹쳐 착용하면 더욱 멋스럽다. 4월 15일부터 전국 판도라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79-6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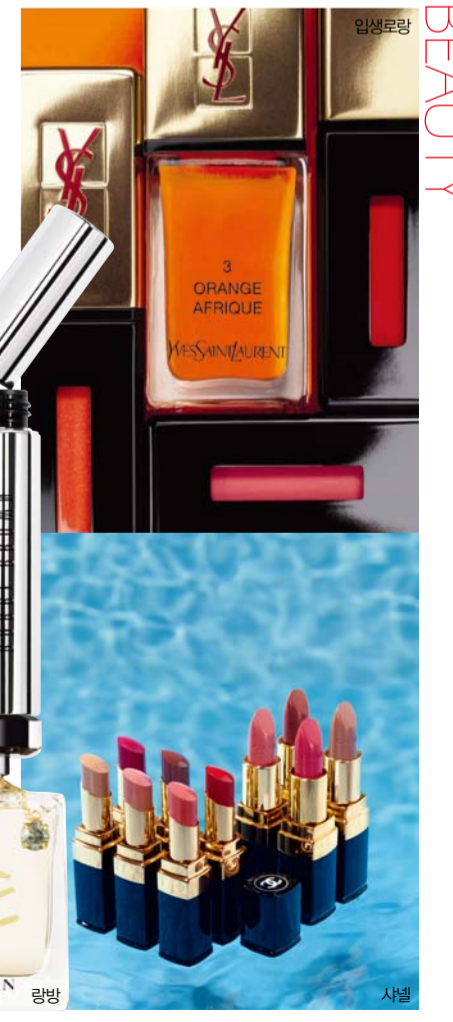
까르띠에 인그레이브드 웨딩 링 까르띠에는 남녀 커플 베스트셀링 아이템인 까르띠에 인그레이브드 웨딩 링을 제안한다. 플랫폼 링의 표면 위에 까르띠에 로고를 정교하게 새겨 유행을 타지 않는 모던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화사한 핑크 골드 플래티넘, 플래티넘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클래식한 디자인까지 다양하게 선보인다. 문의 1566-7277

인생로망 오렌지 꾸뛰르 컬렉션 인생로망은 2013년 봄을 위한 컬러로 '오렌지 꾸뛰르' 컬렉션을 제안한다. 브랜드의 사조와 함께한 컬러이자 리브 고슈 로고의 상징적인 오렌지 컬러는 6가지 톤의 린스틱과 네일 레커 등 매력적인 컬러로 거듭났다. 문의 080-347-0089

바비 브라운 노 스머지 마스카라 바비 브라운에서 '노 스머지 마스카라'를 새롭게 출시한다. 글로벌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마스카라가 속눈썹 뿌리에서 끝까지 정교하게 발리도록 고안했으며, 제품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0시간 동안 마스카라가 그대로 유지되어 하루 낚림 없이 속눈썹을 도톰하게 표현해준다. 문의 02-3440-2548

샤넬 린스틱 신제품 샤넬의 린스틱 루쥬 코코와 루쥬 코코 사인에서 산뜻한 봄에 어울리는 베이지, 핑크, 코랄, 레드 등 10가지 컬러를 새롭게 출시한다. 크리미하고 촉촉한 텍스처와 부드러운 발림성을 자랑하는 루쥬 코코 사인은 30% 추가된 컬러 피그먼트 발색력을 높였으며, 8시간 동안 보습이 지속되어 볼륨감 있는 입술을 연출한다. 문의 080-332-2700

랑방 미 오 데 퍼퓸 랑방에서 미(ME) 오 데 퍼퓸을 선보인다. 엘버 엘버츠와 향수 디자이너 도미티유 베르티에가 협력해서 만든 이번 향수는 여성스러우면서도 능동적인 랑방의 여성상을 표현한 플로럴 향수다. 만다린과 블루베리의 톨 노트로 시작해 류베르즈 향의 마들 노트로 이어지다가 라카리트 블랙 우드로 마무리된다. 문의 080-800-8809



JEWEL



FOREVER LIGHT CREATOR

다크스팟 . 광채 . 피부결 . 탄력



yslexperience.com



YVES SAINT LAURENT

마법의 빛의 한방울

4-in-1 멀티 광채 세럼 - 포에버 라이트 크리에이터

피부 속부터 광채가 우러나오는 맑고 투명한 무결점 피부에 도전하세요.

입생로랑의 혁신적인 차세대 스킨케어 성분 '글리칸액티브 WT™'를 담은 4-in-1 멀티 광채 세럼으로 다크스팟, 광채 뿐 아니라 피부결과 탄력까지 한번에 개선하세요.

SERUM
CORRECTEUR PIGMENTAIRE
SKINTONE CORRECTOR